

2023

결대로자랑
컨퍼런스

여름



2023

결대로자람
컨퍼런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삶의 주인공으로서 학생은 삶과 밀접한 교육과정을 스스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배움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 운영으로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교사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의 실행자, 사용자, 실천가로서의 역할로 확대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학생 한 명 한 명 결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공동체 모두 어떤 교육과정을 펼쳐나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매우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으로 펼쳐내는지, 어떻게 평가해서 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현재의 교육을 성찰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을 서로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대로자람 컨퍼런스는 이러한 미래형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현재의 결대로자람 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 자리입니다.

지난 8년간의 결대로자람학교의 교육적 철학과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은 인천 미래교육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대로자람학교의 성장을 발판으로 인천의 모든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출발점에 와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인천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결대로 성장하여 의미 있는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모든 교육공동체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도 자신만의 가치를 열매 맺을 수 있는 성공시대가 함께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1일



2023

결대로자랑 여름 컨퍼런스

▲
인천
현신교육
한마당

등록 QR코드 첨부



아래 QR코드를 접속하여 응답해주세요.
(10초 소요)





2023 결대로자람 여름 컨퍼런스 일정

◎ 슬로건 **결대로**, 모든 학생의 성공! **다함께**, 모든 학교의 성장!

◎ 일시 2023. 6. 21.(수) 14:00~17:20

◎ 장소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및 회의실

◎ 대상 인천 관내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 일정 운영

순	시간	구분	내용	비고
1	13:40~14:00	[등록]	참가자 등록(QR 등록)	• 2F프리미어볼룸 로비
2	14:00~14:20	[개회]	개회	• (사회) 학교·마을협력과 장학관 김현주
		[인사말씀]	교육공동체의 주도성이 빛나는 교육과정	•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축사]	교육공동체가 협력하는 인천 교육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충식
		[명사포럼] 프리미어볼룸	결대로 , 학생 주도성이 빛나는 교육과정 탐색	• 인하대 교수 조현영 • 한국교원대 교수 김성천 • (진행) 인천만수초 교사 백신종
3	14:20~15:20			휴식
4	15:20~15:40			
5	15:40~17:20	[세미나] 프리미어볼룸	结대로 , 미래형혁신학교 교육과정 세미나	• 서울교대 교수 이수영 • 인천도림초 교사 홍문숙 • 동암중 교사 장서정 • (진행) 인천해든초 교감 박인섭
				세션1 작은 학교의 지속가능한 혁신교육 인천용유초, 인천천마초, 내가초 110~111호(1F)
				세션2 교사 성장시스템 인천도담초, 인천석암초, 인천송원초 113~115호(1F)
				세션3 학생중심 교육과정 인천연학초, 인천갈월초, 인천작전초, 인천해서초 116~118호(1F)
				세션4 전문적학습공동체 인천가석초, 인천양지초, 인천효성초, 인천화전초 204~205호(2F)
				세션5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교육과정 부일여중, 부평동중, 인천영종고 206~207호(2F)
				세션6 깊이 있는 학습 명현중, 동산중, 용유중 107~109호(1F)

CONTENTS

[명사 포럼]

결대로, 학생 주도성이 빛나는 교육과정 탐색

- 발제 1 심층학습을 위한 수업과 평가 설계

조 현 영(인하대학교 교수) _ 9

- 발제 2 혁신교육의 도전적 과제를 위한 제언

김 성 천(한국교원대학교 교수) _ 15

[세미나]

미래로, 미래형혁신학교 교육과정 세미나

- 발제 1 미래형교육과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발하는가?

이 수 영(서울교육대학교 교수) _ 27

- 사례발표 1 학교교과목 「복숭아 마을에 살아요」 개발 이야기

홍 문 숙(인천도림초등학교 교사) _ 37

- 사례발표 2 「동암중학교, 학교를 열다[Ver.1]」 개발 이야기

장 서 정(동암중학교 교사) _ 51

2023

결대로자랑 컨퍼런스

여름



[명사 포럼]

결대로, 학생 주도성이 빛나는 교육과정 탐색

1. 심층학습을 위한 수업과 평가 설계

조현영

인하대학교 교수

학생성공시대에는 **인천교육**



심층학습을 위한 수업과 평가 설계

조 현 영(인하대학교 교수)

1. Student Agency: 학생 주도성에 주목하다.

OECD는 2015년 DeSeCo 프로젝트의 2.0 버전으로 볼 수 있는 〈OECD Education 2030 Project〉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교육’을 제안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DeSeCo 프로젝트가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도출해내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면, 〈Education 2030〉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법, 평가시스템 등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량의 방향만 제시하였던 Deseco 연구와는 달리 새로운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에서 익숙한 개념과 용어들과의 관계에 관해 보다 명확하게 밝혀줌으로써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의 구조에 대해 명시화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 제시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관통하는 것으로서 학습자의 메타학습 능력이다. 이는 ‘반영하고 적응하는 방법’으로서 메타인지 및 성장 마인드 세트를 뜻하는데, ‘자기주도의 학습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역량을 지식과 기능으로 국한시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식, 기능과 가치와 태도를 아우르는 것으로서 메타학습 능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 다만, 전후맥락을 두고 추론해보건대 역량의 총체성, 즉 지식과 기능 그리고 태도의 총합을 염두에 둔다면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는 메타학습을 좀 더 강조하는 역량으로 재개념화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상은 ‘OECD 2030 Project’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경기, 충북, 그리고 전북의 학력관 등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2. 심층학습: 학생 주도성 교육을 위한 시작

불분명하고 초점이 맞지 않고 논의의 여지가 없는 연구 문제	심층 연구에 도움을 주는 분명하고, 초점이 확실하고, 좁은 연구 문제
호치민의 레닌에 대한 충성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호치민이 1920년에 레니니즘Leninism을 채택한데 있어 민족주의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는가?
중국 연극의 역사는 무엇인가?	mel lan fang의 유산은 현대 jingju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식물에게 엽록소는 얼마나 중요한가?	잎 노화와 엽록소 생합성에 대한 키틴의 농도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가?
미국 정부의 지출 정책은 어떻게 재편되었는가?	상승하는 COE 가격이 소비자 인구에 의한 신차 및 중고차에 대한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2012-2016년 기간 동안 싱가포르 경제가 창출한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니까?

IB 가이드북에서는 심층 연구과제를 위한 문제를 설정할 때, 좌측에 불분명하고 초점이 맞지 않고 논의의 여지가 없는 연구 문제와 오른쪽에 심층 연구에 도움을 주는 분명하고 초점이 확실하고, 좀은 연구문제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북에서 대조시킨 각각의 연구문제는 연구 주제가 얼마나 구체적인지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동기와 관점의 개입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좌측이 단순한 정보 수준의 것들을 정리해야하는 문제라면 오른쪽은 정보를 자신의 관점을 반영하여 재구성하고 논점을 만들어가야 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설정은 학습자로 하여금 탐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기도 하다. 예컨대, 교사들이 흔히 수업의 도입부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지?’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학습자들은 이런 저런 내용이 떠오르지만 어떠한 대답을 해야할지 막연한 경우가 많다. 또 교사가 어떤 의도에서 질문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떠오른 내용이 적절한 답일지고민하게 된다. 반면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엽록소는 식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라고 묻는다면 학습자는 좀더 명확하게 생각의 방향을 설정하고 답을 정리하는 것이 용이진다. 따라서 사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형성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측에 제시한 연구 문제가 개념 탐구를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측의 주제들을 보면 굉장히 지식 탐구의 활동일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가치와 태도를 아우르는 개념 탐구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질문의 형식 가운데 이러한 특징을 간단한 예로 들수 있을 것이다. 질문이 ‘어느 정도’, ‘얼마나’와 같은 문제의 진술 방식으로 제시된다는 것은 학습자의 관점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야 하고, 답안을 개별화 시키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구체화된 맥락에서의 질문을 시작으로 학습자는 본인의 관점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IB에서의 탐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식에 국한된 학습이 아니다. 오히려 우측에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어떻게 자신의 관점을 설정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탐구 의지를 유지시켜나가는지, 즉 심층 과제를 해나가는 동안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지속시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 학습 과정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탐구 활동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지식의 심층? 자기주도성 학습?

그렇다면 심층학습에서 지식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어떻게 가치와 태도 문제와 연결되는지 IB의 평가에서의 구현 사례를 살펴보자. 위에서 제시한 IBDP 수학과 내부평가 과제에서 평가준거 가운데 ‘C.참여’의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참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준 C: 직접 참여〉

성취단계	설명
0	아래 명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	직접 참여한 흔적이 조금 있습니다.
2	직접 참여로 중요한 역할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3	돋보이는 직접 참여의 흔적이 있습니다.

'직접 참여'의 기준은 학생이 수학을 탐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학생의 참여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는 노력을 측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접 참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립적이거나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수학적 개념을 제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탐구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른 수준의 직접 참여의 더 자세한 예시는 교사용 보조 자료(TSM)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이 탐구 결과에 직접 참여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열심히 참여했다고 교사가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시각이 반영되지 않은 교과서 방식의 서술이나, 이미 있는 수학적 서술 방식을 모방하는 것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 **중요한 역할**: 몇 가지 사례에서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 명백해야 하고, 탐구를 진행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작가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돋보이는 역할**: 학생은 수많은 사례에 직접 참여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그 내용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통하여 탐구를 창의적으로 진전시켰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생의 접근을 통하여 탐구 주제의 맥락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더욱 높였으며, 다른 학생들이 해당 학생의 의도를 잘 이해하였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IB에서의 참여를 평가한다는 것은 정의적인 영역 혹은 어떤 태도적인 측면으로 보여지는 영역도 결과물이 담고 있는 지식의 질적 수준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이 IB가 생각하는 개념 학습이자 학습자 주도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설계의 원리로 볼 수 있다. 지식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게 학생의 주도성의 문제와 동일시된다는 것, 예를 들어 '돋보이는 역할' 수준으로 참여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탐구 주제의 맥락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더욱 높여야 하며', '다른 학생들이 해당 학생의 의도를 잘 이해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내용적인 구성이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것'과 같이 참여의 질적 수준이 지식의 깊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단순히 열심히 참여하는 게 아닌, 방향성을 갖는 '잘한' 참여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역량이란 그런 것 아닐까?

다음의 'D : 성찰'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성찰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성찰일지의 분량이나 성찰일지를 얼마나 꼼꼼히 썼느냐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기준 D: 성찰〉

성취단계	설명
0	아래 명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	성찰의 흔적이 약간 있습니다.
2	의미 있는 성찰의 흔적이 있습니다.
3	비판적 성찰의 흔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찰'의 기준은 학생들이 탐구 과정을 최종적으로 결론짓는 방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찰은 결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결과를 간단히 설명하기만 하는 것은 **제한적인 성찰을 의미합니다**. 높은 수준을 달성하려면 더 심도 있는 성찰을 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성찰을 보여주는 방식의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탐구 목표와 연관을 지어 탐구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하거나, 다른 수학적 접근을 비교하거나 한계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비판적 성찰은 매우 통찰력 있거나 결정적이고 종대한 성찰입니다. 결과값을 다시 설명하면서 탐구를 심화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고, 탐구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배가 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성찰을 보여주는 방식의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상하거나, 결과가 암시하는 점을 토론하거나, 접근 방식의 강점과 약점을 나누거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당한 흔적이 중요한 성찰이 곳곳에 나타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흔적이 탐구 과제의 결론에만 보이는 경우, 등급 3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탐구에서 개념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입증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내용의 수준이 질적으로 높아야 합니다.

다른 수준의 성찰에 대한 더 자세한(선택 사항) 예시는 교사용 보조 자료(TSM)에 나와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성찰이란 얼마나 깊게 통찰력 있는 사고를 했는지, 내용의 수준이 질적으로 굉장히 높아야 하는데 그 질적으로 높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접근 방식의 강점과 약점을 나누는 수준이 되어야 하고 탐구 과제와 같이 다른 관점에 대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비로소 높은 수준의 성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방식의 구체적인 비판적 성찰이라는 것은 아주 수준 높은 성찰이 지식의 수준과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IBDP 평가 가이드에서는 자세하게 제시한다.

4. 평가로 자기주도성을 길러주는 방법

다음의 평가 루브릭은 IBDP의 수학과 내부평가(수학에세이)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 루브릭은 개별화된 수학 에세이에 대한 평가 루브릭인데, 이러한 수학 평가 도구가 갖는 구조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길러주기 위한 메타적 학습을 촉진시키는 재미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A. 의사소통	B. 수학적 표현	C. 학생의 직접적 참여도	D. 비판적 성찰	E. 수학적 난이도
0	아래 기술된 기준 이하	아래 기술된 기준 이하	아래 기술된 기준 이하	아래 기술된 기준 이하	아래 기술된 기준 이하
1	어느 정도 논리의 일관성이 있음	적절한 수학적 표현을 일부 사용함	학생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증거가 있음	성찰이 미흡하거나 피상적인 증거가 있음	관련 있는 수학적 기술이 쓰였음
2	어느 정도의 논리의 일관성과 전체 구조의 조직이 보임	수학적 표현들이 대부분 적절함	학생이 직접 수행한 증거가 약간 있음	유의미한 성찰의 증거가 있음	관련 있는 수학적 기술이 사용되었고 미흡한 해석이 제시되었음

	A.의사소통	B.수학적 표현	C.학생의 직접적 참여도	D.비판적 성찰	E.수학적 난이도
3	논리가 일관되고 구조가 잘 조직되어 있음	보고서 전체의 수학적 표현들이 모두 적절함	학생이 직접 상당 부분을 수행한 증거가 있음	비판적 성찰의 증거가 많이 있음	수업 수준에 맞는 관련 수학적 기술이 사용되었고 미흡한 해석이 제시되었음
4	주제가 일관되고, 잘 조직되어 있으며 명료하고 완성도가 높음		학생이 탁월하게 수행한 증거가 충분히 많음		수업 수준에 맞는 관련 수학적 기술이 사용되었고 일부는 정확하며 수학적 지식과 해석이 약간 제시되었음
5					수업 수준에 맞는 관련 수학적 기술이 사용되었고, 대부분 정확하며, 풍부한 지식과 해석이 제시되었음
6					수업 수준에 맞는 관련 수학적 기술이 사용되었고, 모두 정확하며, 빈틈없이 완벽한 지식과 해석이 제시되었음

예를 들어 평가준거 ‘E.수학적 난이도’에 해당하는 준거와 다른 준거들과의 관계가 그것인데, 만약 학생이 자신이 설정한 에세이의 탐구주제 난이도를 너무 높게 설정한다면 그 학생은 A~D까지의 준거에서 좋은 성취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는 1년간의 에세이 지도기간에 준거E의 난이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도록 지도할 것이고 학생은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학적 수행능력과 기타 다른 영역에서의 수행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학생은 수학적 탐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과 수행성에 대해 스스로 찾아가게 되고 이는 학생이 학습과정에 대한 메타적 인지와 설계가 가능하도록 돋게 된다. 이러한 평가설계의 모순적 구조를 통해 IB는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방법을 평가에 적용한 것이다.

2023

결대로자랑 컨퍼런스

여름



[명사 포럼]

결대로, 학생 주도성이 빛나는 교육과정 탐색

2. 혁신교육의 도전적 과제를 위한 제언

김 성 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결대로, 학생 주도성이 빛나는 교육과정 탐색

김 성 천(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 왜 학생 주도성인가?

유발 하라리(2018)는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제언하였다.

“오늘날 아이들이 배우는 것의 대부분은 2050년이면 별 소용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지금 너무나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정보를 밀어 넣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중략> 정보는 이미 학생들에게 차고 넘친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이며, 무엇보다 수많은 정보 조각들을 조합해서 세상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다. <중략>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며, 낯선 상황에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일 것이다.”

미래 사회의 핵심은 불확실성이다. 무엇보다 전 지구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기후위기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하는데, 이를 대처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시민 한사람이 절실히다. 한국사회 역시 교육을 바라보는 이중 구조가 결합되어 있다. 적어도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은 뉴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고, 몸부림이었다.

구파러다임	뉴파러다임
•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힘	• 저항하고 맞서는 힘
• 욕망	• 희망
• 신민	• 시민
• 계층의 사닥다리를 향한 교육	• 삶을 가꾸는 교육
• 입시에 종속된 교육	• 입시에 갇히지 않는 교육

세상을 바라보는 여섯 가지의 렌즈가 존재한다. 미래사회는 만들어가는 것인가, 주어진 것인가의 질문이다. 기술이 사회를 결정하는가,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는가의 문제이다. 인간이 구조에 구속되는가?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산업화와 정보화는 자본의 이익 극대화의 문제와 동일한 연속론적 시각과 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닌 사회인가? 미디어의 효과는 큰가 아니면 작은가? 인간의 모습은 능동적인가 아니면 수동적인가?

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는 않다.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어진 미래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미래를, 인간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자본주의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며, 미디어의 본질을 깨뚫고,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주체적 인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주체적 인간은 인간의 우월성과 정복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생태계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신물질주의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간의 능동성과 주체성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다. 권력과 자본의 끊임없는 침탈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잊지 않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한다. 그러한 문제의식은 칼 폴라니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2. 미래교육과 학교의 방향

송기상·김성천(2019)은 미래교육의 변화는 표준화된 교육에서 개별 맞춤형 교육의 전환, 에듀테크의 활용과 활성화, 마을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 평생교육과 유초중등교육의 경계 허물기, 시민교육을 통한 주체성의 강조를 제시하였다. 미래교육은 혁신교육과 분리되지 않으며, 주어진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원리로서 혁신교육을 이해해야 한다. 혁신교육을 유행의 의미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국가교육회의(2019)는 산업화 시대와 5·31 교육개혁안의 한계를 넘어 서야 한다고 보고, 학생의 주체성, 배움과 삶이 연계되는 교수·학습,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교수·학습, 학생 개개인을 배려하는 교수·학습을 강조하면서 피상적 학습에서 심층학습으로 가야 하며, 형식학습과 무형식 학습의 혼합이라든지 대면과 비대면 수업의 혼합학습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동시에 학생의 진로 탐색과 선택권 강화, 학교의 혁신과 진화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상무 외(2021)는 미래사회의 인재상으로 ①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학제적 지식 ② 자기주도성이나 디지털 문해력 등을 포함하는 핵심역량 ③ 자기존중감과 공감능력 등을 포함한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면서,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교육내용-방법-인프라-평가방법의 변화, 개별맞춤형 학습이 요구된다.

동시에, 탈교과서적 교육방법으로서 프로젝트 수업, 문제기반수업, 플립러닝, 탐구기반학습, 크로스오버러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는 ‘기술 우선적 사고’라든지 ‘기술 만능주의’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은순(2015)은 미래교육환경은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는 설명이 어렵다고 보았지만 그 효과성을 확인하기 전에 너무 빠른 기술의 변화가 지속되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선 시설보다 학습자 중심의 디지털화라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 학습 맞춤형 교육, 3차원적 디지털 경험 등을 중요한 변화로 인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준비가 필요하며, 시스템상으로 비공식적이고 비형식적인 학습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구소희 외(2020)는 미래교육의 방향으로서 보다 체계화되고 정교한 블렌디드 러닝의 활성화, 생태교육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 인공지능 기반 학습의 적용,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저자들은 디지털

인프라든지 학교의 물리적 공간 재구조화를 강조하면서도 디지털 시민성의 토대로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는 미래교육이 기술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시민 형성 및 양성과 연결지어 그 방향성을 탐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김현자 외(2019)는 경기도 혁신고등학생들이 졸업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직장이나 대학생활에서 전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입시와 관련하여 불안감을 느낀다고 토로하였다.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이 수시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다 어울린다고 졸업생들은 말하였다. 이들이 학교라는 생활의 장에서 경험한 가치는 협력, 주체성, 책임감, 자율성, 공동체, 시민의식, 비판적 사고, 실천 등 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입시를 고려하지만,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는 고교 교육의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김성수(2019)는 수학포기자를 질적으로 다루었다. 수포자의 문제는 학생이 단순히 노력을 안한 문제로 보기보다는 변별력을 위한 도구로 수학과목을 인식하는 흐름에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한계가 작동한 결과이다. 이는 미래교육 담론이 소수를 위한 수월성 교육으로 흘러서는 곤란하고,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외된 학생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 매우 절실함을 시사한다. 이는 수준과 관심, 진로 등이 학생마다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를 학교의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공교육의 과제로 볼 수 있다. 결국,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고교 교육 역시 예외가 아님을 시사한다.

김성천 외(2019)은 고교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방향 전환을 제시하였다. 뉴패러다임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 스토리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표 2-1〉 방향의 전환

	구패러다임	뉴패러다임
인재상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	공공성과 지역성의 가치를 삶에서 실현하는 시민
모델	성적 우수학생 많이 확보하기 (선발효과)	어떤 학생이 들어와도 잘 성장시키기 (학교효과)
운영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중심형 교육과정 운영 •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 강력한 생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을 통한 성장 스토리 만들기 • 자기주도학습 • 회복적 생활교육과 학생자치회 활성화
지향점	구별과 차별 (1류, 2류, 3류)	나눔과 공유, 네트워크, 특성화, 다양성
풍토	학교장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	3주체의 민주적 참여와 소통, 거버넌스

〈출처: 김성천 외(2019), 139쪽 인용〉

이 연구에서는 미래학교로 가는 길로서 네트워크, 학교교육과정 특성화 및 다양화, 개인맞춤형, 마을교육 공동체, 민주시민, 에듀테크 활용, 지역교육과정, 혁신교육으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교과중점학교 방식으로 특정 반을 개설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동시에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1차적으로는 단위학교 내 교육과정 개별화·특성화·다양화를 도모하면서 학교 간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충분히 구축하고, 에듀테크 등을 적절히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새로운 학력관과 자기주도성

성열관 외(2016: 96)는 신학력을 교과 지식, 역량, 실천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진 교과 학업성취는 물론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민주시민적 힘”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경쟁과 차별 중심의 수업관에 대한 성찰과 반성적 사고를 포함하며, 지성과 감성, 시민성의 균형과 함께 나, 타인, 공동체와의 관계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신학력관은 핵심 역량 교육의 관점을 일정하게 수용하면서도 역량중심교육에 관한 비판적 관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 제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구체화해야 하는데, 연구진이 제시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성열관 외, 2016: 120-128).

- ① 교사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 ② 전인적 성장과 전면적 발달을 의미함
- ③ 학습 분량의 적정화
- ④ 학교를 넘어선 교육경험 제공
- ⑤ 수업 소외 현상이 없어야 함
- ⑥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임
- ⑦ 융합=통합-범교과적 교육과정의 특성을 지진다.

전북교육청 뿐만 아니라 세종교육청에서도 참학력에 관한 실천을 하고 있다. 성열관 외(2020)는 세종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참학력의 방향에 관해 제시하였다. 세종형 학력은 ‘지식, 능력, 성향’, ‘지성, 심성, 시민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단편적 지식 중심의 학력관과는 차별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OECD Education 2030에서 강조하는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e)’의 개념이 세종형 학력이 지향하는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학생들의 전면적 발달을 위해서 지성, 감성, 시민성, 건강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지식은 사회의 주요 문제와 연결되어 삶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수업은 배려와 관계의 가치를 세워야 하며, 학생들의 발달속도가 다르며, 지향점과 선호점 역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김현섭·장슬기(2019)는 미래교육의 7가지 특징으로 네트워킹, 스마트학습공간, 무학년 학점제, 학습공동체, 직업연계 역량 기반 평생교육, 학습코치로서의 교사 역할, 교육자치 및 지역사회의 마을교육 생태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저자들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만큼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관점을 강조하면서도 교사의 코칭의 전문성도 동시에 강조하였다.

연구자들은 프로젝트학습이 이러한 속성을 잘 반영한 수업으로 보면서, 동시에 절대평가, 과정중심평가, 성장중심 역량평가, 질적평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를 포함한 평가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안학교인 별무리학교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이 학교에서는 학생 개설과목을 인정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구현하고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학생의 자기 주도성 내지는 행위 주체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가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최수진 외(2019)는 OECD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 실행에 관한 특징을 몇 가지로 분석하였는데, 우선은 역량교육이 ‘성공’이 아닌 ‘개인적·사회적 웰빙’으로 인식되며, 동시에 변혁적 역량과 학생들의 행위 주체성을 중시하였다. 이는 지식과 기능, 태도와 가치에 관한 세부 요소를 포함하며, 과제와 원리를 세부화 내지는 구체화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동시에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또래, 학부모, 지역사회를 포함한 상호협력을 강조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 진공상태에서 단독으로 구현되는 방식이 아니고, 교원, 학부모, 동료, 지역주민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학력 내지는 역량교육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결과중심적 관점이 아닌 과정 중심적 접근이 중요하다. 동시에 교원과 학부모, 마을주민들의 상호 협력 체제와 문화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선택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수업, 학습공동체라든지 마을교육공동체, 고교학점제 등의 혁신교육 정책의 흐름과 세계적인 교육 개혁의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주연 외(2019)는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신학력, 참학력 내지는 미래 역량에 관한 철학과 인식을 가지고 혁신학교 교육과정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살아가는 힘”, “관계의 힘”, “계속 배울 수 있는 힘”, “소통하고 협력하는 힘” 등을 참학력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문제풀이식 교육 내지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대안적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사례 분석한 결과, 주제 중심의 교과통합교육과정을 강조하였으며,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활성화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교과교육과정의 충실한 이행이라든지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교과목 선택권 확대 내지는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의 가치를 혁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흡수하고 있었다. 혁신학교의 수업의 특성으로는 학생 중심의 수업, 협동 및 토론 수업 진행, 삶과 연계된 수업의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한다. 평가의 특징으로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강조하면서도 지필고사도 시행을 하고 있었으나 비중을 줄여가고 있었다.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중시하였다. 하지만 실천의 과정에서 학력저하, 대입에 대한 우려 등에 따른 고민과 딜레마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앞으로 교육과정의 중요한 키워드는 거버넌스 및 교육과정의 민주주의 구현, 시민역량, 맞춤형 개별화, 선택교육과정 강화, 지역연계교육과정, 학교와 지역의 연계, 온오프라인(디지털 교과서, 지능형 학습 등) 학습 연계,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자 주도성 강화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학력을 위해서는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공급자 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진로와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얕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지성, 감성, 시민성을 포함하는 총체적 영역이며, 역량의 개념을 내포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리와 통제가 아닌 통합과 관계를 중시하는 수업 원리가 중요하며,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유기적 연결이 중요하다. 나아가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즉 양에서 질로, 결과에서 과정으로, 서열화에서 피드백을 위한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에 대해 이오덕(2010)은 삶을 가꾸는 교육으로 말했는데, 학생의 주도성과 교원의 촉진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한 바 있다. OECD 2030 나침반과 설명체계와 다르지 않다.

교육은 글자 그래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라고 하면 가장 무난하고 타당한 말이 될 듯 한데, 그러나 이런 말은 너무 막연합니다. 옛날에 하였던 서당교육, 일제강점기의 식민지교육, 그리고 분단시대에 하여 온 점수 따기 경쟁교육, 이것이 모두 ‘가르치고 기르는’ 일이라고 말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하늘이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라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없애 주는 것, 이것이 교육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삶을 가꾼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삶을 지킨다, 북돋운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교육은 절대로 교사가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주고 받는 것, 아이들의 마음과 교사의 마음이 만나는 것, 거기서 교육이 된다는 뜻이겠지요(이오덕(2010): 214-215).

이선영 외(2020)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참여 수준을 Anderson의 모델을 참고하여 1유형인 통보형에서 2유형 건의형, 3유형 협의형, 4유형 교사지원형, 5유형 독립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모델을 응용하여 미 참여0, 명목상참여(형식적 동원)1, 소극적 참여(의사개진)2, 적극적 참여(의사결정)3으로 분석한 결과, 학교운영 참여는 1.63, 학생자치 활동 참여는 2.40이 나왔으나, 학습활동 참여는 1.35에 머물렀다.

이를 Anderson의 모델로 살펴보면, 학교운영참여나 학생자치활동 참여에 비해 학습활동 참여 영역은 낮은 수준의 양상을 보인다.

이 연구는 학생이 참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데, 특히 학습활동 참여 수준에서 학생의 주도성을 인정하거나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이 아직 낮은 상태임을 시사한다. 한편, 학생의 주도성을 높이기 이전에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관한 주도성 내지는 자율성 역시 높여야 한다. 주어진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존재가 아닌,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개발하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이는 교사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물론, 그것은 내 맘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료와 함께 협업하고, 전문가로서의 기준이 적용되며, 공동체의 통제 내지는 국가 내지는 지역, 학교 차원에서 지향하는 교육과정의 비전과 목표, 영역 내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여고의 교사들은 환경과 인간생활이라는 교과목 개발에 도전하였다. 그 과정에 도전했던 한 교사의 면담 결과이다.

“환경과 인간생활”이라는 교과목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위에서 언급한 지리쌤테이블에서 진행한 독서토론 때문이었습니다.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라는 책을 읽고 독서토론을 진행하며 환경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연수 제작, 교과목 신설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관심사가 같은 교사들이, 2019년부터는 우연히 한 학교에 모이게 되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모여 이야기 나누고, 솔직하게 고민을 내놓고 도움을 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이고, 도전할 마음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고시 외 과목이 존재한다. 일부 예만 들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교육청: 융합독서, 과학철학 입문, 생각하는 삶

경기도교육청: 컴퓨터프로그래밍, 영화 소설, 미래교육과 416(중), 과학자 따라잡기(중),

경상남도교육청: 텃밭가꾸기, 공동체 회의, 인턴십, 자기성장프로젝트

경상북도교육청: 제과제빵, 지역사회탐방, 앱과 코딩

광주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인문사회과학 책쓰기

충북교육청: 학급자치, AI 실용수학탐구, 존중세미나, 자율심화연구

전라남도교육청: 실용음악과 생활, 지구촌과 세계인, 문화예술체험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비평, 미디어와 현대사회, 사회적 경제

교육과정에 관한 상상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학생의 시민성과 주도성, 진로와 직업의 연결하는 교과목이 적지 않게 개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과와 비교과의 경계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현자 외(2020)의 연구에서는 혁신고를 졸업한 24명의 삶을 추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경험에 졸업 이후의 삶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무엇이 전이되었을까?

첫째, 혁신고등학교 수업에서 학생의 ‘주도성’은 중요한 수업 운영 원리이자 학습 내용이었다. 혁신고등학교의 수업은 참여자들의 ‘주도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졌고, 참여자들이 수업의 과정에서 주도성을 연습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둘째, 혁신고등학교 수업의 상당 부분은 동료학습자와 팀을 이루어 ‘함께’하는 활동이나 과제로 이루어졌다. 협업의 과정은 동료 간 갈등이나 무임승차 등의 문제로 수반하였으나, 참여자들은 동료와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하여 또 다른 차원의 성장을 경험하였다. 셋째, 혁신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은 학습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과정이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PPT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정리하고, 구두발표나 글쓰기를 통하여 동료와 공유한 경험은 대학에서의 학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김현자 외, 2020: 153-163 인용).

한편,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의 연계가 필요하다. 군산의 한들고 학생들은 폐자전거를 태양광 자동차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에 성공하였다.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마을 어른들이 함께 협력한 결과였다. 김성천 외(2021)는 군포의왕 지역을 분석하면서 지역연계교육과정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목표	삶과 지역과 세계를 알고, 가꾸고, 실천하는 민주시민	
핵심가치	생태, 문화, 융합, 혁신, 공공	
추진원리	교육과정 중심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고유성의 발견 및 구체화 • 재구성, 구성 • 학교와 지역 교과목 개발
	급별 이형화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학교자율과정 •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선택교과 •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교과목 개설
	연대와 협업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와 지자체(평생교육기관), 지역기관의 컨텐츠를 적극 활용 • 공동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추진 TF 구성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과 블렌디드 학습 강화
	통합 지원의 원리 (발굴-소통-연결-조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지역사회학습장 발굴 및 활용 • 교육지원청의 지원 기능 강화(교과목 개설, 강사발굴)
	연구와 투자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별 지역교육과정 개발비 지원 • 학교별 교과목 개발 • 역량 강화
	학생 주도성 강화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와 연구 • 실행과 실천(프로젝트) • 지역 발전에 기여
	중간지원 조직 활성화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과 지자체 공동 출자를 통한 센터 설립 또는 기존의 교육재단에 기능 부여
운영모델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2-중-고 연계형 • 지역 교과형 • 학교 교과형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년제형(지역자원 직접 연계형 주제선택 수업/ 지역연계형 주제선택 수업/교육과정 재구성 모형(주제중심 교과융합프로젝트 - 학교자율과정 (교과융합활동, 마을과 연계한 교육활동, 학생주도 주제별 프로젝트 활동)) • 선택교과형(인정교과서 활용 민주시민교육/ 지역이해 관련 선택과목 개발 및 개설)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 주도 개설 과목 운영 모형 • 지역사회학습장 활용 네트워크 학습 모형 •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학교자율과정 운영 모형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확대 모형

〈출처: 김성천 외, 2021: 240-231〉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무엇을 해야할까?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며, 원고를 마무리한다.

첫째, 사일로 효과(Silo Effect)와 폐쇄적 교직문화를 극복해야한다. 학생 주도성을 위한 수업과 교육과정을 위해 지역기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고립과 폐쇄는 교육과정의 경로의존성만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미래교육과 혁신교육은 분리되지 않는다. 혁신교육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함께 설계해야한다. 학교 내부에서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관한 비전 세우기, 소통과 나눔, 공유, 학습의 과정 없이는 미래교육이 올 수 없다. 에듀테크가 곧 미래교육은 아니다.

셋째,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영역에서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기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학생자치회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 학생의 주도성을 비교과에서 실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를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교육과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한 학기를 마치고 학교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면서 우리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부족한 영역을 찾아내고 해결해야 한다.

넷째, 교육과정 전달 모형에서 재구성으로, 나아가 생성과 개발로 나아가야한다. 이는 교과목 개발을 의미한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교사 스스로 교육과정의 실행자이지만, 개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학교교육과정, 지역연계교육과정, 교사교육과정의 실행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다섯째, 학생 주도성은 실천을 강조하는데 이는 곧 시민성 강화와 연결된다. 학교와 지역, 주체와 주체 간 융합을 도모하면서 지역 정주성과 시민성을 높여야한다. 지역연계교육과정은 지역의 미래로 이어진다. 학교와 지역이 넘나들며 배우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개별학교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교육지원청, 지자체의 지원을 전제로 한다. 자원의 발굴, 연결, 활용, 소통의 장이 절실하다.

여섯째, 전지구적 위기 상황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수업과 교육과정에서 모색해야 한다. 생태전환교육의 철학을 지향해야 한다.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련의 학습과 연구, 협업, 실천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학생주체성은 발현될 것이다. 그 발현의 조건 대해서 교원과 마을 주민들이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구소희 외(2020). 소화된 미래교육. 테크빌교육
- 국가교육회의(2019). 2030 미래교육체제의 방향과 주요 의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 김상무·김수동·김세곤(2021). 미래사회와 교육. 동문사
- 김성수(2019). 수학 포기자의 수학 포기 경험에 대한 교육과정 사회학적 해석.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성천 외(2019). 충청북도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미래형 학교모델개발연구.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 김성천 외(2021). 지역사회학습장을 활용한 군포의왕 지역교육과정 운영모델 개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 김현자 외(2019). 경기도 혁신고등학교 학생의 생활경험과 졸업 후 삶. 경기도교육연구원
- 송기상·김성천(2019). 미래교육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살림터
- 성열관 외(2016). 새로운 학력 개념 정립 및 구현 방안. 시도교육감협의회
- 성열관 외(2020). 미래지향적 혁신교육체제 연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성열관·이형빈·김성수·정미라(2020).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 -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교육부 연구보고서.
- 유발 하라리(2018).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김영사
- 이선영 외(2020). 학생의 학교 참여 수준과 특징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이오덕(2010). 민주교육으로 가는 길. 고인돌.
- 이주연 외(2019). 혁신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은순(2015). 교육공학 관점에서 보는 미래 교육환경, 교육공학 31(3), 687-708.
- 최수진 외(2019). OECD 교육 2030 참여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2023

결대로자랑 컨퍼런스

여름



[세미나]

미래로, 미래형혁신학교 교육과정 세미나

1. 미래형교육과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발하는가?

이 수영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미래형교육과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발하는가?

이 수 영(서울교육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15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주요 개정 방향은 “미래 사회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 과정 개발 및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및 “교육 주체 및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적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으로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21).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과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맞춤형 교육을 추구하며,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현장 적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의 학생 주도성 강화를 위한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교육과정의 내용과 목표)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 “지역 연계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교 자율시간 도입 및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그리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근거**”(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방법)를 총론에 마련하였다(교육부, 2021).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서울교육대학교 미래교육센터는 2021년부터 “미래형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전문가협력 현장실행연구를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미래형교육과정”은 학생 주도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개발·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편성, 운영의 자율권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시도이다.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미래형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전문가협력 현장실행연구 과정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경험하지 못했던 시도이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착오를 겪었지만, 향후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향하는 방향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문가협력 현장실행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형교육과정”的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한 미래형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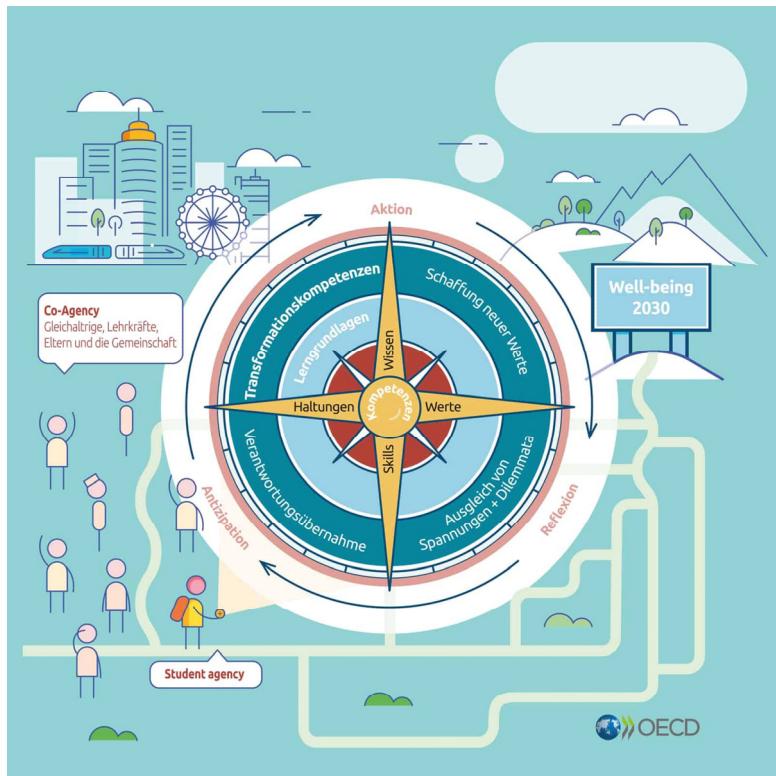
II. 본론

1. 학생 주도성과 공동 주도성

가. 학생 주도성과 공동 주도성의 개념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은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OECD, 2019)의 ‘학습

나침반’에 제시된 개념으로([그림 1] 참고), “자신의 삶과 주변 세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능력, 의지, 신념”으로 정의된다(OECD, 2019). 학생 주도성은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능력으로 미래사회에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교육부, 2021).



[그림 1]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의 학습 나침반
(OECD, 2019), p.24

학생 주도성은 개인 내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춘 ‘자기주도학습’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미를 생성하고 성장하며, 동시에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개념이다(온정덕 외, 2021). 이에 OECD 학습 나침반에서 함께 강조하는 개념이 공동 주도성(co-agency)이다.

공동 주도성은 학습자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상호적이고 지원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학생이 변화의 주체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지만, 학습자 뿐만 아니라 학습자를 둘러싼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온정덕, 2022; OECD 2019).

학습자가 각자 자신이 설정한 목표(개인과 사회의 웰빙)를 향해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각자의 경로(path)를 따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동료 학습자, 교사, 지역 공동체(학부모 포함)는 학습자가 목표와 경로를 설정하고 성장을 도와주고, 지도해 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 주도성과 공동 주도성의 구현을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이 아닌 학습자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자율성과 운영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나.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과 주도성

학생 중심, 학생 맞춤형 교수방법에서 나아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넘쳐나는 정보의 흥수 속에서 학교 교육의 목적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학습자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라면,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학습 목표와 내용을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의 논의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제는 교수 방법 뿐 아니라 학습의 목표와 내용도 학습자 개개인의 삶과 암의 목표에 맞춰 개별화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학점 단위로 학기별로 운영되는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하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예, 파이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강좌를 선정하여 자신의 속도에 맞춰 강의를 수강한 후 목표를 달성했음을, 즉 역량이 갖추어졌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면 학점을 부여받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학점짜리 강의라면 1학기 15주 동안 1주일에 3시간씩 수강해야 하는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매일 6시간씩 1주일에 강좌를 완료할 수도 있고, 6개월에 걸쳐 완료할 수도 있다. 학위도 예를 들어 4년 동안 13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과 동시에 학위가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 장단기,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개발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역량 유형에 따라 micro-degree 형태로 수여되고, 이러한 micro-degree를 통합한 ‘나의 역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취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진정한 의미의 학습자별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이외 개별 맞춤형 강의 선택과 편성, 학습 지원을 도와주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고교학점제가 어느 정도 이러한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의 성격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또는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개별 관심과 목표에 부합하는 충분한 교과목 또는 강좌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암의 목표, 진로, 사회 공동체의 공동 목표와 가치, 각자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충분하게 다양한 교과목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한편,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과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맞춤형 교육과정의 가장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처럼 대학생의 경우 초중고 과정을 통해 자신과 사회, 세계에 대한 이해를 키워왔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구성과 편성에 있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 아직 삶의 경험이 제한적이고,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과 공동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에 있어 스스로가 처음부터 혼자 주도성을 발현시키기는 불가능하다. 학생 주도성은 혼자 목표를 설정하고 경로를 찾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목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경로를 제안하고, 여러 가지 경로 중 무엇을 선택할지 도와주고, 선택한 경로가 맞지 않으면 이는 실패가 아님을 알고, 또한 실패해도 괜찮음을 알고 다른 대안적 길을 갈 수 있게 안내해 주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 주도성을 개발하기 위해 교사와 지역 공동체의 공동 주도성이 함께 개발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동 주도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 개발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본 “미래형교육과정” 연구에서는 공동 주도성 중에서 특히 교사의 주도성을 우선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래형교육과정을 함께 개발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교사 주도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개발되고, 성장하는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미래형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2. 미래형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 지역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간 주체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선택과목 개발·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서 개별 교사의 재량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학교 자율시간** 도입을 통해 하나의 정식 ‘교과목’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표 1〉 국가 교육과정, 지역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비교(교육부, 2021)

주체	주요 내용과 특징
국가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학교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국 공통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내용 학교 자율시간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총론에 마련 (교과) 한 학기 17주 기준 수업시수를 16회로 개발하고 1회 분량은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요소와 성취기준 등을 유연하게 개발
지역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여 시도교육청 등이 개발·운영하는 교육과정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 등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 개발, 지역 특색을 살린 선택과목 및 체험활동 개발·운영(시도교육청 개발 가능)
학교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역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의 관심과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개발·운영하는 교육과정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 및 프로젝트 활동 편성·운영, 학교 자율적으로 지역 연계 선택과목 개발·활용, 교과 교육과정(지역 연계 단원 구성, 성취기준 등)에 대한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자율시간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교 자율시간을 이용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경기도의 ‘학교자율과정’, 전라북도의 ‘학교교과목’, 충청북도의 ‘자율탐구과정’, 충청남도의 ‘학교자율 교육과정’ 등이 있다. 특히 전라북도의 ‘학교교과목’은 ‘교과목’ 설정이라는 행정적 요소가 뒷받침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분권화가 강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유영식, 2023).

본 연구의 “미래형교육과정”은 미래를 살아갈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미래지향적 성격을 반영한 ‘미래형’ 교육과정임과 동시에 국가 주도가 아닌 단위 학교가 주체가 되어 개발·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 일반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별 학교에서 수립하는 1년 간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OO 학교 교육과정”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와 구분하기 위하여 “미래형교육과

정”을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과목”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즉,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이 보다 체계적이고 학교 전체에 걸쳐 통합적인 노력으로 진행됨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래형교육과정”은 한편으로 교사 교육과정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교사 교육과정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학문적 용어이기보다는 현장에서 만들어져 통용되는 용어로, 유영식(2023)은 “국가·지역·학교 교육과정의 기반 위에 학생과 교사의 철학을 담아낸 실천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교사가 실제 가르치는 학생과 교실, 학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실제 실천한 교육과정이 교사 교육과정이다. 교사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 교육과정, 주제 중심 교육과정, 교과 단원 재구성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교사 교육과정은 일반 교과시간 내에서도 운영될 수 있고, 학교 자율시간 내에서 교사별로 학급별로 운영될 수 있다. 이 중 특별히 개별 교사가 개발·운영하는 교사별 교육과정이 아닌 학교 전체 혹은 최소한 동학년 전체 교사가 함께 개발·운영하는 “학교교과목”的 형태로 학교 자율시간을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미래형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래형교육과정은 교사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으로 ‘교사공동체’의 역할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미래형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가. 전문적학습공동체와 교육과정

개별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이 아닌 ‘교사공동체’의 협력적 실천을 기반으로 개발·운영되는 미래형교육과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전학공)’을 교사공동체의 운영 형태로 제시하였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Lave & Wenger(1991)의 학습을 공동체의 주변인에서 중심 구성원으로 참여·성장해 가는 과정으로 보는 실행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s)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Hargreaves(2003)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학교를 전문적 학습 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로 논의하는 것으로 발전하여 ‘교사학습공동체’, ‘전문가학습공동체’, ‘배움공동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란 ‘교원들의 동료성을 강화하여 협력적인 연구와 실천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로 정의하고,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특징을 1) 모든 구성원들의 가치와 비전 공유, 2) 수업과 학생들의 학습 활동이 논의의 핵심이 되는 수업중심성, 3) 서로 협력적으로 학습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성원 간의 협력으로 제시하고 있다(서길원, 허승대, 2015).

한편 교사 학습공동체를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 연구(곽영순 외, 2014)에서 교사의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역량을 의사소통 능력,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 셀프리더십 구심점(비전) 공유의 단위학교 차원 역량과 교육과정 전문성, 교과 전문성, 교수·학습 및 평가 전문성, 학생 이해,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의 개별 교사 차원 역량으로 구분하여,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개별 교사 차원의 역량과 함께 단위학교 차원의 집단적 역량이 함께 개발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미래형교육과정이 개별 교사의 교사 교육과정과 차별되는 점은 미래형교육과정은 학급별(초등학교의 경우)로 또는 과목별(중학교의 경우)로 분절되어 실행되는 교육과정이 아닌 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생의 삶과 앎을 위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미래형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주체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개별 교사의 다양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사 교육과정 개발·운영은 교육 현장에서 실천된 교육과정(enacted curriculum)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교과목’으로서의 미래형교육과정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공동체가 개발·운영하는 교사 교육과정의 한 형태로 교사(가 만든) 교육과정의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학교 자율시간’으로 확보된 시수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우리 학교만의 교육과정을 학교와 학습자 상황과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해당 학교 교사공동체가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미래형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1) 미래형교육과정의 비전과 가치 공유

전학공을 통한 교사공동체가 미래형교육과정 개발하는 이유는 첫째로 학교교과목의 비전과 가치를 전체 교사공동체 그리고 나아가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교과목으로서의 미래형교육과정은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국가 교육과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지만 국가 교육과정의 한계로 인해 국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혹은 다루지 못하는 내용과 범위, 주제와 소재로 학교 자율시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정된 ‘학교 자율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학교교과목을 운영할 것인가는 학교의 공유된 가치와 비전, 철학을 바탕으로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미래형교육과정은 학습자들에게 어떤 학습 경험을 줄 것인가를 학교 구성원 전체가 논의하고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교 시스템은 표준화된 주어진 국가 교육과정의 운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이 주어진 자율 시간에 학습자들의 어떤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내용과 주제의 학습 경험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역량과 내용,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학교 학습자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주변 환경,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해, 교육과 학습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공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개별 교사 차원의 고민이 아닌 학교 차원의 공동체 논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한 두번의 피상적 회의가 아닌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민주적 공동체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발전되어 가야 한다.

2) 학습자 입장에서 학습의 연계성과 통합성 확보

전학공을 통한 교사공동체가 미래형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학습자 입장에서 학습의 연계성, 통합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별 비전과 가치, 학교별 특색 사업 등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 학습, 주제학습 등이 개별 교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학습들(예를 들어 인공지능, 환경문제, 지속가능발전, 우리 마을의 문제 해결 등)은

국가 교육과정 상 제시된 성취기준과 내용요소가 아니거나 재구성한 주제인 경우가 많으며, 학급별, 학년별, 과목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학급, 다른 학년, 다른 과목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에서는 확보된 학교 자율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의 입장에서 1학년때부터 6학년까지 해당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보다 체계적이고 연계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전체 학년 대표 선생님으로 구성된 전학공을 운영하였다. 미래형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학교들은 행복배움학교로서 이미 학급별, 학년별로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학공 모임에서 서로 운영 중인 프로젝트 학습의 주제와 학습 목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학습 경험이 중복되거나 연계되지 못하는지, 어떤 부분이 현재 부족한지 알 수 있었다. 현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한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전학공 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합의되어 갈 수 있었다.

3) 미래형교육과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전학공을 통한 교사공동체가 미래형교육과정 개발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학교교과목으로서 미래형교육과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교사의 새로운 교육과정 재구성 노력은 대부분 교사 차원에서 운영되고 끝나기 쉽다. 수업 나눔 등을 통해 교사 교육과정을 공유하거나 온·오프라인 교사공동체 내에서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많은 경우에 있어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은 공유되는 활동이기 보다는 개인적(private)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표준화된 국가 교육과정의 역할이 매우 컸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역량과 전문성보다는 교육과정 실행 및 운영 역량과 전문성이 더 강조되어 왔다. 제한된 교사의 자율권 내에서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과 내용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것인가의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개별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창의성이 발휘되어 왔다.

교사들은 항상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도와 목적, 내용과 방식 등을 기록하고 문서화할 필요성과 중요성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문서화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인식하고, 개별 교사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부분은 교사 각자의 머릿속에 정리하여 각자가 실행하는 것으로 이를 굳이 정리하여 어떤 형태로든 공유될 수 있는 형태로 남기는 것은 불필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학교교과목으로서 미래형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학교만의 성취기준과 내용요소들을 담고 있는 교육과정이며, 학습자 입장에서 지속적이고 연계된 학습 경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바뀌더라도 학교교과목의 가치와 주제는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교과목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미래형교육과정은 교사공동체의 집단지성과 노력으로 개발하고, 개발과정과 결과물을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형교육과정 개발과정을 교사의 개인적 활동에서 공적인 활동으로 인식을 바꾸고, 개발과정과 결과물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유하기 위해 전학공 운영을 추천한다.

4) 미래형교육과정의 공식적 기록과 공유

더불어 미래형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 과정과 결과물도 지속가능한 형태로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학습자의 학교교과목을 통한 학습 경험과 경로가 이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 교육과정은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의 형태로 국가 교육과정의 개발 의도와 바람직한 실행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미래형교육과정 또한 개발 및 실행 과정과 결과물을 학교 교육 공동체가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형태의 공식적 기록(records)이 필요하다. 이를 미래형교육과정 ‘교과서’ 또는 ‘교사용지도서’라고 하면 정형화된 형태만을 떠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또는 ‘교사용지도서’라고 부르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미래형교육과정의 개발 의도와 바람직한 실행의 예시를 제시하는 유연한 형태와 방식의 기록물(records)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하는 초등학교에서는 학년별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용 안내서, 교사용 미래형교육과정 안내 동영상, 학생용 워크북, 학생별 포트폴리오 등을 시도하고 있다. 학교교과목으로서 미래형교육과정은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획일적인 형태의 교과서 또는 교사용 지도서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향후 미래형교육과정 자체 만큼이나 창의적인 방식의 교과서 또는 교사용 지도서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III. 맷음말

미래형교육과정은 미래를 살아갈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삶과 암의 목표와 경로를 설정하고 미래 사회와 변화의 주체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된 학교 자율시간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운영되는 학교교과목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공동체가 협력하여 개발·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미래형교육과정은 학생 주도성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이며, 미래형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통해 교사의 공동 주도성 또한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교사의 교과 전문성, 교수·학습 전문성 역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는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와 개발 전문성 역량은 개발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단위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편성, 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와 개발 전문성 역량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 현장의 교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전문가협력 현장실행연구 방식으로 초등학교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선생님들과 함께 미래형교육과정을 개발해 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미래형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 모든 학교의 전문적학습공동체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하나의 학교 문화로 자리잡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사공동체로서 미래형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은 변함 없다.

외부의 전문가가 학교교과목으로서 미래형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가 개발한 미래형교육과정을 과연 원래 취지의 “미래형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외부 전문가가 개발한 미래형교육과정의 개발을 통해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 외부 전문가가 만들어 제출한 미래형 교육과정은 교과서나 교사용지도서와 같은 용도의 문서일 뿐일 수도 있다.

“미래형교육과정”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성장의 과정이며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 “미래형교육과정”은 마지막 결과물만큼이나 개발과 운영의 과정 차제가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모든 교육과정이 그러하듯 미래형교육과정의 개발은 종료가 없다.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고, 운영과 실행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정과 보완이 지속되면서 발전된다. 미래형교육과정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형교육과정의 완성이 아닌 발전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미래형교육과정은 학생 주도성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이고, 변화에 대응하는 주도성은 실패해도 괜찮음을 경험할 기회를 통해 길러진다. 공동 주도성으로서 교사 주도성도 마찬가지이다. 교사의 미래형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은 교사의 혁신적 역량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요구이며 도전이다. 미래형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다.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 더욱이 혼자가 아니라 교사공동체가 함께하는 과정이라면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할 힘이 더욱 더 커질 것이다. 미래형교육과정 개발의 시작은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는 비전과 가치를 위해, 새로운 것을 도전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

참고문헌

- 곽영순, 민재원, 임수연, 백인화(2014). 교사의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 방안(II) (연구보고 RR C 2014-9).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세종: 교육부. 2021.11. 24.
- 서길원, 혀승대(2015). 경기도 교육청의 교사 학습공동체와 학교교육 혁신 - 경기도 혁신학교 정책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 학습공동체를 통한 학교교육 및 교육과정 혁신 정책포럼 발표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5-79
- 온정덕, 김병연, 박상준, 방길환, 백남진, 이승미, 이주연, 한혜정(2021).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기준 마련 연구. 세종: 교육부.
- 온정덕, 김종훈, 박상준, 박수련, 이승미, 정기효, 정소영(2020). 초·중학교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Hargreaves, A. (2003). *Teaching in the knowledge society: Education in the age of insecurit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Lave, J., &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결대로자랑 컨퍼런스

여름



[사례발표]

미래형혁신학교 교육과정 개발 사례

1. 「복숭아 마을에 살아요」 개발 이야기

홍 문숙

인천도림초등학교 교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복숭아 마을에 살아요’ 개발 이야기

홍 문 숙(인천도림초등학교 교사)

I. 학교교과목 개발을 시작하여

미래형교육과정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미래라는 단어가 주는 모호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우리를 미궁에 빠뜨렸다. ‘미래란 무엇이지?’, ‘미래에 필요한 교육과정은 무엇일까?’ 정답도 없는 질문에 우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질문하고 고민하며 토의와 연구를 병행해 나아갔다.

수많은 질문과 토론 끝에 우리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바로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현재의 삶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가치가 담긴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딛고 앞으로도 이어갈 이상과 가치가 담긴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교만의 고유성과 특성을 반영한 도림초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육과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바로 도림초 학생들의 현재의 삶과 연결되며, 앞으로도 이어갈 가치가 담긴 우리 학교만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학생 자신의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살아있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미래형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인천도림초등학교는 9년차 혁신학교로서 혁신이란 거창한 말보다는 ‘살아있는, 생동하는, 안주하지 않는, 교육을 고민하는, 많은 시도와 실패를 경험하는’이라는 말이 우리 학교를 더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의 가장 큰 특성은 민주적인 학교문화로의 변화였다. 권위적이지 않은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학교의 주인으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며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과의 토의와 토론, 협의를 통해 공동의 문제해결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만이 아니라 학생도 학교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본교의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잘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이다. 9년간의 교육과정에 대한 치열한 배움과 연구의 과정을 통해 우리 학교는 학교 전체의 비전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각 학년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교육내용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모든 학년의 교사가 교육

과정 재구성 역량을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매년 구성원이 바꿔는 학교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성장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찾아보았다.

본교의 **성장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6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연결하는 과정이다. 학년별로 재구성을 하다보니 6개 학년의 교육과정이 하나로 끊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각각을 전체로 연결하는 연결의 과정이 필요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연구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이어가는 것이다. 매년 교육과정 재구성 연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나 과정이 문서로 상세하게 기록되어있지 않음으로 이를 다음 교사에게 구전으로 전달하다보니 일시적이고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셋째, 학년의 수준에 맞는 내용 구성과 학년 간 교육과정의 위계화이다. 학년 간의 위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학생의 배움에서 학년 간 교육내용이 중복되거나 누락 되는 경우가 생겼다.

넷째, 교사 구성원의 변화로 인한 지속가능성의 문제해결이다. 매년 전입과 전출로 변화하는 교사 구성원의 마음을 모으고, 가치에 동의하는 일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구성원의 변화는 도림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이어가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위와 같이 우리 학교의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 절차를 거치며 우리 학교교과목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 연구의 과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II. 학교교과목 개발을 과정



[학교교과목 개발 절차]

1. 1단계: 학교교과목의 의미와 가치 정하기 : ‘더불어 살아가기’

첫 번째 단계는 ‘학교교과목의 의미와 가치 정하기’로 학교교과목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공동체 전체가 합의하고 공유하는 중요한 단계로 우리가 왜 학교교과목을 개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공유하게 하는 과정이다. 학교교과목 개발의 방향을 결정하며, 학교교과목이 지향하고 있는 의미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도림초의 학교교과목의 의미와 가치는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고, 스스로 또 같이 성장하는 행복한 도림’의 비전을 바탕으로 탐색해 나갔다. ‘상생, 공존, 실천과 참여, 같이 성장, 더불어 살아가기’ 등 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이 중 공동체가 함께 의미를 살피며 교과목의 의미와 가치를 정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학교교과목의 의미와 가치를 상기하며 정한 학교교과목의 가치는 ‘더불어 살아가기’였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연과 공존하며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되었고,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교과목이 필요한 이유, 교과목의 의미, 교과목이 추구하는 가치, 교과목의 목표 등을 고민해보게 되었다.



[1단계: 교과목 의미와 가치 설정 공동체 합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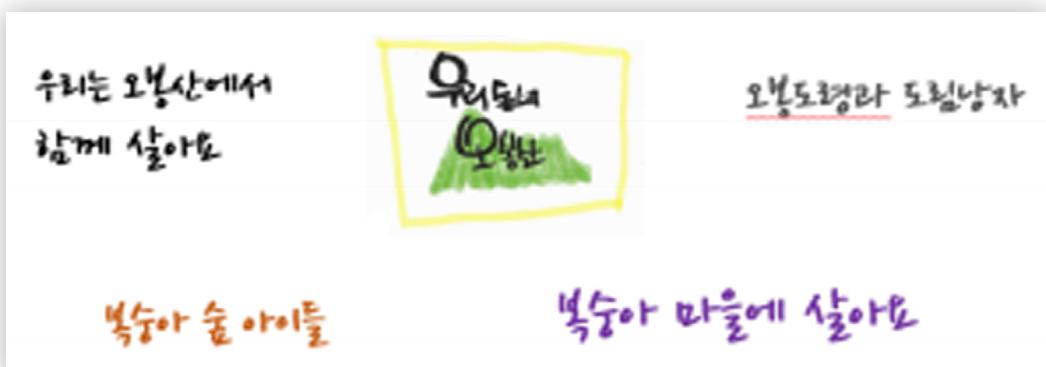
2. 2단계: 학교교과목명칭 정하기 : “복승아 마을에 살아요”

2단계에서는 ‘학교교과목의 명칭 결정하기’로, 쉬우면서도 재미있는 과정이었다. 우리 학교의 명칭인 도림(桃林)은 ‘복승아 숲’이라는 뜻이다. 마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교과목의 가치를 포함하면서도 우리가 정한 교육과정의 내용인 생태와 마을의 내용이 반영된 교과 명칭을 함께 논의했다.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갖고 활발히 제안하는 모습에 우리가 만드는 교과목에 공동체가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단계였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명칭의 결정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결정하기로 위임 받아 명칭의 느낌이 학교 교과목 방향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한 학교교과목 명칭은 ‘복승아 마을에 살아요’로 결정하였다.



[2단계: 학교교과목의 명칭 설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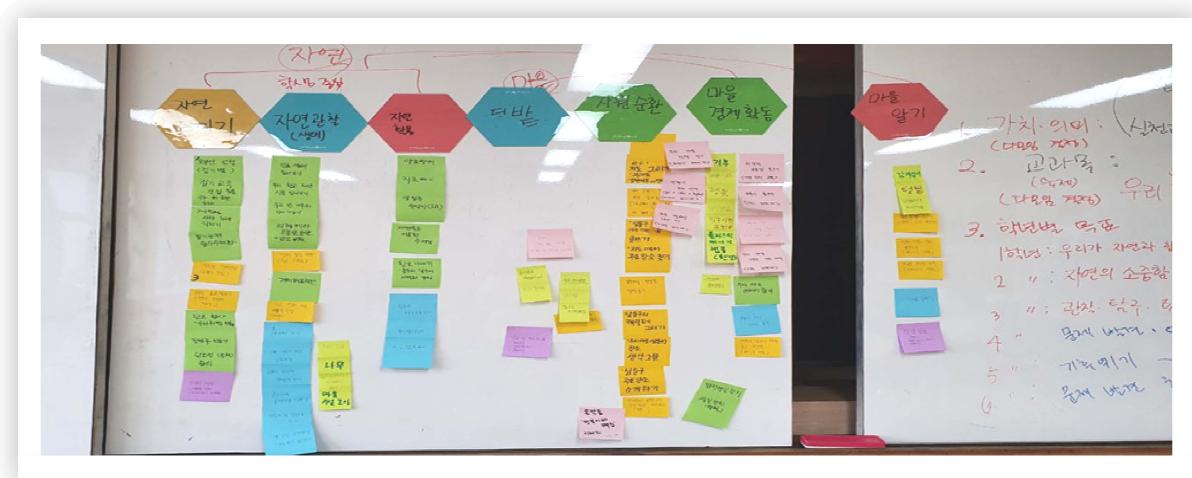
[2단계: 학교교과목 명칭 구상 과정]

3. 3단계: 학교교과목 목표 설정하기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복숭아 마을의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가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할 수 있다.'

3단계는 '학교교과목 목표 설정하기'이다. 사실 우리 학교는 학년별 목표를 수립하고 설정하고, 학교교과목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4단계의 학년별 협의에도 불구하고 학년별 목표가 결정되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 그때서야 3단계를 놓치고 4단계로 넘어 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학년별 목표 설정의 난항 후 다시 거꾸로 3단계인 학교교과목 전체의 목표를 설정하는 협의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이때 목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주제의 범위를 좁히고 털어내는 과정을 여러 번 논의 끝에 내용은 생태환경, 범위는 동네로 정하였고, 교과목의 목표를 교과목의 가치와 연결하여 설정하였다.



[3단계: 학교교과목 목표 설정 과정]

4. 4단계: 학교교과목 학년별 목표 설정하기

4단계는 ‘학교교과목 학년별 목표 설정하기’로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라는 가치와 유목화된 활동을 통해 학년별 목표를 도출했다. 전체 교사 회의인 다모임을 거쳐 다시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학년별 목표를 결정하였다.

1차 협의 시 1, 2학년은 감수성 느끼기, 3, 4학년은 관찰·조사, 5, 6학년은 태도·개념에 중점을 두고 목표를 설정하였다. 2차 협의에서는 위계와 연계성을 고려해보았고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제를 두어 학년군의 특색을 살리고자 하였다. 3차 협의에서는 시제에 따른 구분에 대한 협의 후 4차 협의시 4~6학년의 목표가 비슷해 보이고 너무 ‘동네’에 집중된 것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최종적으로 목표의 범위(**범위는 우리 동네, 주제는 생태**)를 설정하여 이 범위 안에서 학년별 목표를 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교과목 학년별 목표 설정

학교 교과목 목표: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복숭아 마을의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가 복숭아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할 수 있다.

- 1학년: 해를 따라 살아가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 2학년: 오봉산의 사계절을 탐험하고 나만의 보물을 찾아 표현할 수 있다.
- 3학년: 오봉산과 학교 숲을 관찰하고 탐험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 4학년: 우리 동네를 관찰하여 생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탐색하여 시도한다.
- 5학년: 복숭아 마을 주민으로서 마을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문제 해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 6학년: 우리동네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실천할 수 있다.

[4단계: 학교교과목 학년별 목표 설정]

5. 5단계: 학교교과목 주제 설정하기

5단계는 ‘학교교과목 주제 설정하기’이다. 돌이켜보면 전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은 주제 설정 과정이었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었던 교육 활동 속에서 교과목을 추출하는 과정이었기에, 각 학년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학년별로 다른 색깔의 포스트잇에 적고 그 활동을 다시 같은 종류끼리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역으로 학교교과목의 주제를 추출했다. 즉, 우리가 교과목을 만든 후 교육 활동을 하는 순서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활동을 엮어가는 과정에서 주제를 추출했다. 아마도 다른 학교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의 교육 활동이 많이 중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교과목 개발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도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교육과정을 성찰하고 뒤돌아보며 그 위계를 세우는 시간이 되었다.



[5단계: 학년별 활동 주제 분류하기]

학교교과목의 학년별 주제 설정 과정		
1차 협의	2차 협의	3차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년: 해를 따라 살아가기 2학년: 오봉산의 보물지도 3학년: 출발! 오봉산 탐험대 4학년: 복숭아 마을 체인지 메이커 5학년: 우리 동네 환경 알고 실천 (복숭아 마을 환경) 6학년: 우리는 해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년: 해를 따라 살아가기 2학년: 4계절 오봉산의 보물지도 3학년: 출발! 오봉산 탐험대 4학년: 복숭아 마을 체인지 메이커 5학년: 우리 동네 환경 알고 실천 (복숭아 마을 환경) 6학년: 우리는 해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년: 해를 따라 살아가기 2학년: 오봉산의 보물 찾기 3학년: 출발! 오봉산 탐험대 4학년: 복숭아 마을 체인지 메이커 5학년: 함께 걷는 복숭아 마을 주민 6학년: 참여하고 해결하는 민주시민 성장기

[5단계: 학교교과목 주제 설정 과정]

6. 6단계: 학교교과목 내용 설정 및 성취기준 개발하기

6단계 '학교교과목 내용 설정 및 성취기준을 개발하기'에서는 학년 간 연계성과 위계성을 고려하며 학년 별 활동 내용을 함께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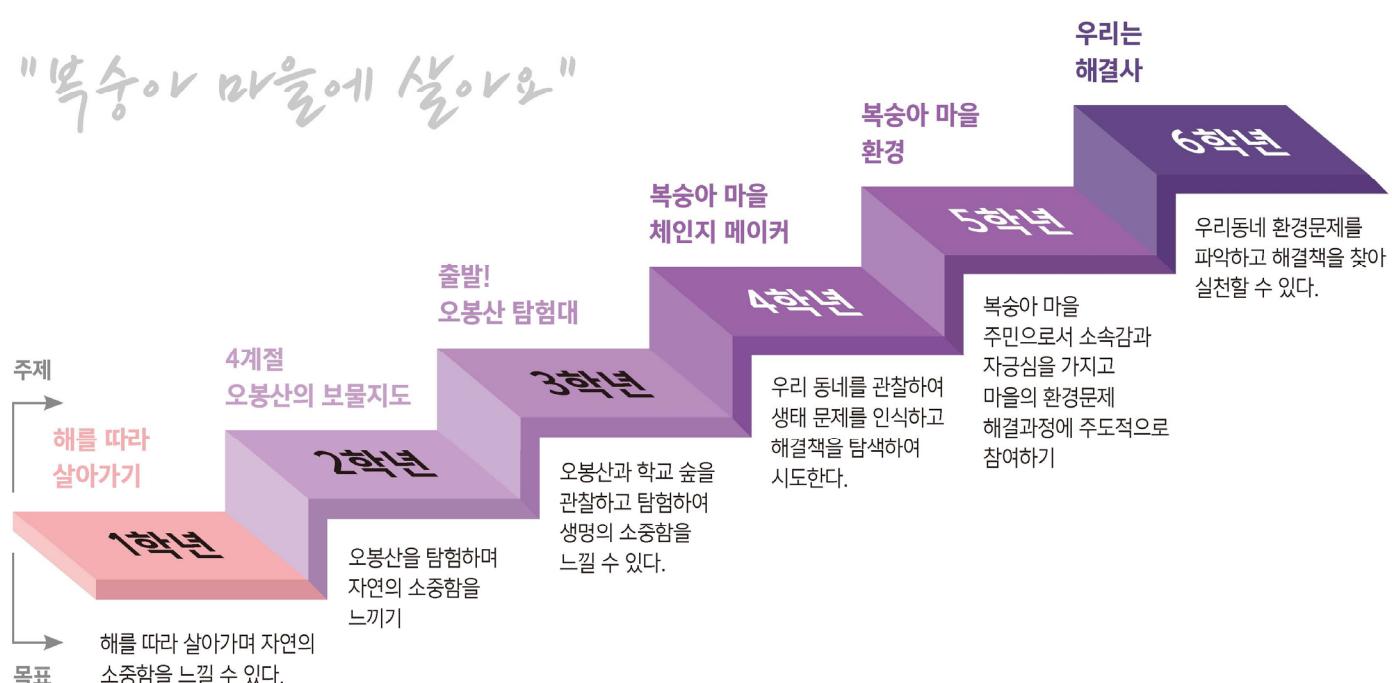
1차 협의에서는 학교교과목 개발 전에 계획된 교육과정 내용 중 학교교과목에 적합한 활동을 선정하여 공유하였다. 특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예상해볼 수 있도록 활동을 구체화하기와 학년 간 연계를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2차 협의에서는 학년별로 구체화된 활동과 학교교과목 성취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학교교과목이 일반성과 보편성을 유지하며 개별 교사의 자율성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3차 협의시에는 학교교과목 목표와 활동 내용에 부합하도록 성취기준을 개발하였으며, 학교교과목 학년별 일련번호와 함께 개발하였다.

활동 내용 구상하기, 구체화하기, 위계성 고려하기, 성취기준 개발하기 등 각 단계별로 개발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다. 교육과정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전체적인 연계성과 위계성까지 고려해야 했기에 더욱 어려움이 많았다.

학교교과목 개발 과정에서의 모습을 간단한 그림을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III. 학교교과목 개발의 성과

본교의 ‘복숭아 마을에 살아요’ 학교교과목을 개발하면서 얻은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교의 **지역과 학생의 실정에 맞는 범위와 계열성**을 갖춘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본교의 교육 환경과 학생 발달 상황에 맞는 인천도립초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한 것이다. 본교는 학교교과목 개발 이전에도 지역과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에 머물렀기에 발생하게 된 중복과 누락 등 비체계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학교교과목 개발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육과정 전체의 체계성과 계열성을 갖춘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천도립초가 지향하는 철학, 교육 환경과 여건, 학생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로 실제적이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의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자신의 삶과 맑이 연결되는 배움을 통해, 학생이 주인이 되어 주체적인 배움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이 살아가는 마을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를 느끼고 관찰하며 마을과 자연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삶의 터전을 가꾸며 삶의 힘을 키우는 실제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학생이 살아갈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미래를 살아가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학교교과목 개발로 학교 구성원 변동에 관계없이 미래형 혁신학교로서의 본교의 **교육적 가치와 의미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매년 바뀌는 교사 구성원은 교육적 가치와 의미가 지속적으로 연결되기에 어려운 구조이다. 새로운 구성원들이 학교교과목의 가치와 의미에 동의한다는 것은 어렵고 불확실한 일이다. 학교교육과정의 일부인 ‘복숭아 마을에 살아요’ 학교교과목의 개발만으로 교육의 지속성이 보장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발판을 마련하였다고는 말할 수 있다. 교육 구성원의 변동에도 이러한 교육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교육과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분명하다. 우리 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의 가치와 의미가 반영된 학교교과목의 개발은 교육의 지속가능성 구현으로 한 발짝을 내딛는 첫걸음이라고 확신한다.

넷째, 학교공동체의 **교육과정 개발 연구력이 성장**하였다. 학교교과목 개발 과정을 통해 그동안 학년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교육과정 재구성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 더욱이 교사 개별로 이뤄지던 교육과정 재구성을 공식적인 문서인 학교교과목으로 통합하는 과정은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을 촉진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었으며, 학년 단위를 넘어 학교 전체의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공동체가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성장이 있었다.

IV. 학교교과목 개발을 위한 제안

학교교과목을 개발하면서 얻은 성과도 많았지만 어려운 점도 있었다. 어떠한 절차로 학교교과목을 개발하여야 할지 몰라 깜깜한 터널을 걷는듯한 막막함을 느꼈던 것과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던 적이 많았다. 이러한 우리의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앞으로 학교교과목 개발을 하고자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전체의 학교교과목 개발에 앞서 **학년교과목 단위나 선택교과목 단위의 작은 단위부터 개발하는 것을 제안한다.** 학교 전체의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과정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앞서 먼저 학년 단위나, 주제 중심의 선택교과목 단위의 형태로 개발한다면 좀 더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2022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며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요구를 차치하더라도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효능감, 자신감, 학생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한 걸음을 오히려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하기 쉽다.** 그러기에 학교교육과정 전체보다는 작은 주제나 학년 단위의 교육과정 개발 시도를 제안한다.

둘째, **개발의 주체가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되기를 제안한다.** 같은 관심과 동기를 가진 교사가 중심이 되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한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동력이 생길 것이다. 같은 동기를 가진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할 때 함께 하는 즐거움과 동시에 교사로서의 성장에서 오는 성취감을 함께 나누며 기뻐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또한 힘들 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되며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학교교과목에 대한 친절한 교사용 해설서의 개발을 제안한다.** 학교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은 일회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사 구성원이 변하더라도 이를 쉽게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교사용 해설서가 필요하다. 교사용 해설서는 다음에 지도하는 교사가 따라 하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교육과정을 변형하여 구성하더라도 해설서가 있다면 더 나은 교육과정 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넷째, **교사의 교육과정 연구를 위한 시간 마련을 제안한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연구하고 토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 현재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교사가 잡무가 아닌 교육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교육의 구조가 마련되기를 제안한다.

[학교교과목 교육과정 개발 예시 자료]

3학년 학교교과목 운영 계획

가) 3학년 학교교과목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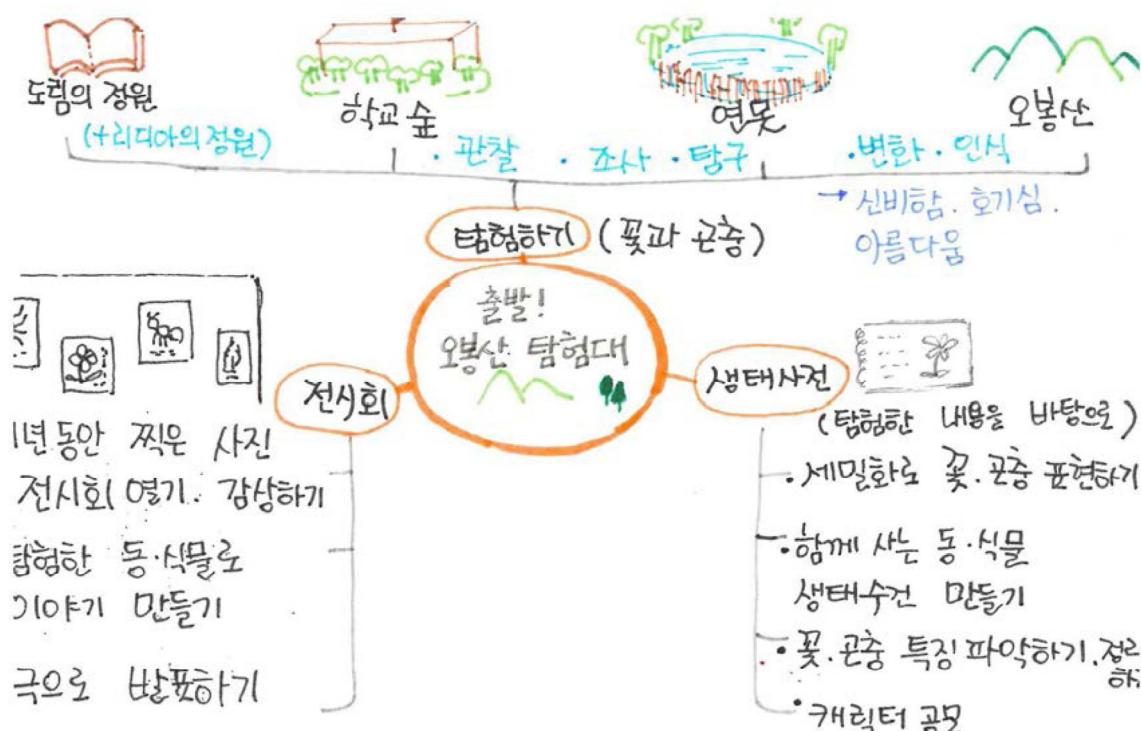
1, 2학년에 배운 사계절의 변화와 감수성을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자연을 관찰 탐험하여 자연의 신비를 알고 우리 마을의 소중함을 느끼고자 한다. 또한 오봉산을 중심으로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고 우리가 자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고 노력하는 태도를 갖고자 한다. 이에 3학년은 우리 학교교과목 <복숭아 마을에 살아요>를 토대로 <출발! 오봉산 탐험대>를 주제로 3학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수를 확보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나) 3학년 학교교과목 전개 계획

1) 목표

오봉산과 학교 숲을 관찰하고 탐험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2) 개요



3) 세부 계획

순	단원명	주요 내용 및 활동	성취기준	차시
1	복숭아 마을에 살아요	학교 숲 탐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학교 숲 탐험하기(숲 생태 놀이하기) • 우리학교 숲 꽃, 곤충(동물) 관찰하기 • 우리학교에 동식물 함께 사는 모습 살펴보기 • 생태사전 표현하기 • 3월 복숭아 마을 탐험대 캐릭터 만들기 	[복3-4]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 숲과 연못, 오봉산의 생태를 탐험할 수 있다. 4
2		학교 연못 탐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학교 연못 탐험하기(비오톱 생태수업) • 우리학교 비오톱 알기 • 연못에 사는 식물과 동물 관찰하기 • 꽃과 동물이 왜 사는지 알아보기 • 생태관련 온작품 읽고 나누기 • 생태사전 표현하기 	[복3-2] 우리학교 연못에 사는 생물을 찾아보고 모습을 자세히 표현할 수 있다. 4
3		오봉산 탐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봉산 탐험하기(숲생태 놀이하기) • 오봉산에 사는 꽃, 곤충(동물)관찰하기 • 오봉산에 여러 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이유 알아보기 • 생태사전 표현하기 • 복숭아 마을 탐험대 탐험 캐릭터 만들고 공모하기 • 학년 티셔츠 만들기 	[복3-3] 오봉산에 사는 식물과 동물을 관찰하여 자세히 표현할 수 있다. 4
4	복숭아 마을 생태사전 생태수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험 후 관찰한 것 세밀화로 그리고 내용 정리하여 생태사전 나눔-2차시 • 생태사전이 마무리 될 쯤 그림 모아서 우리학교 생태 수건 만들기 	[복3-1] 우리학교 숲에 사는 동물과 식물을 관찰하여 자세히 그릴 수 있다.	10
5	복숭아 마을에 함께 사는 동·식물 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학교 함께 사는 동물과 식물 소개하기 • 1년 동안 동식물 찍은 사진 전시회 열기 •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의 신비한 모습과 아름다움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복3-5]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10
총				32



4) 평가

영역	평가내용						
평가 의도	우리학교의 숲과 연못 그리고 오봉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를 자세히 관찰하고 생태사전을 잘 만들었는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우리처럼 자연에도 함께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 함께 탐험하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신비함을 느끼고 고마운 자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였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 내용	<p>[4과03-02] 동물의 생김새나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p> <p>[4과05-01] 여러 가지 식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식물을 분류할 수 있다.</p> <p>[4과05-02] 식물의 생김새나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p> <p>[복03-03] 우리학교 숲에 사는 식물과 동물을 관찰하여 자세히 표현할 수 있다.</p> <p>[복03-04]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 숲과 연못, 오봉산의 생태를 탐험할 수 있다.</p> <p>[복03-05]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p> <p>위 성취기준을 토대로 함께 어우러져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가? 우리처럼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동, 식물도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음을 깨닫고 소중하게 느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또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를 꾸밀 수 있는가?</p>						
평가 기준	평가 방식						
	평가자		평가시기		평가방법		
교사	자기	동료	과정	결과	구술	관찰	자필
학교숲, 연못, 오봉산을 탐험하고 동물과 식물을 관찰하여 생태사전을 만들 수 있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복숭아마을 주변의 생태를 탐험하고 알게 된 동식물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023

결대로자랑 컨퍼런스

여름



[사례발표]

미래형혁신학교 교육과정 연구 사례

2. ‘동암중학교, 미래를 열다(Ver.1)’ 개발 이야기

장 서정

동암중학교 교사

학생성공시대에는 **인천교육**



‘동암중학교, 미래를 열다(Ver.1)’ 개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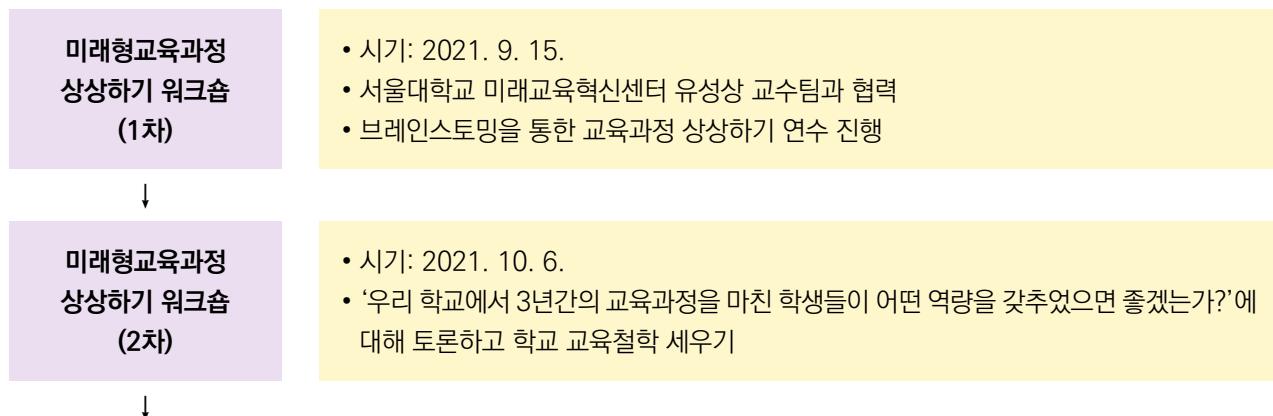
장 서 정(동암중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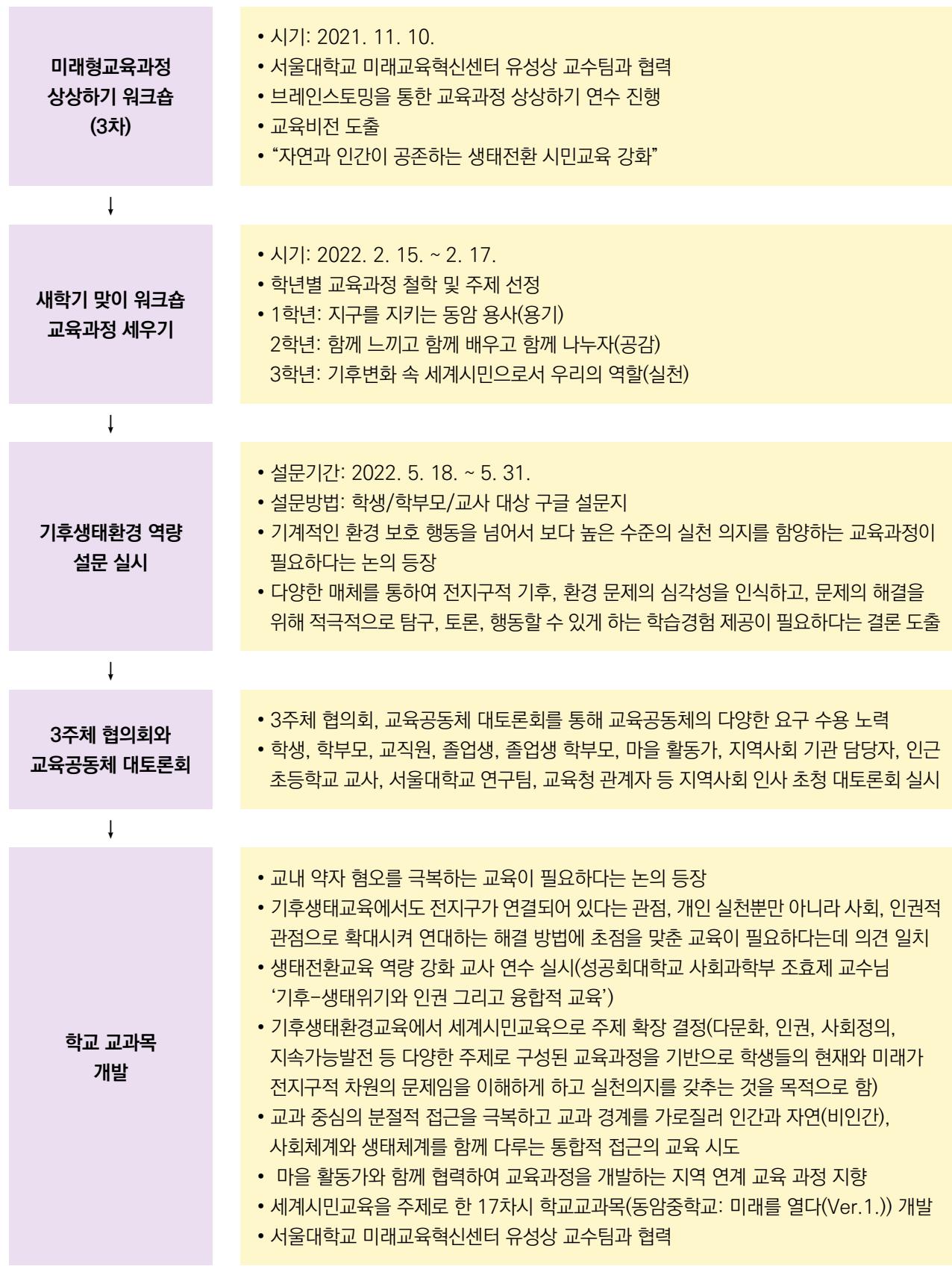
I. 학교교과목 개발을 시작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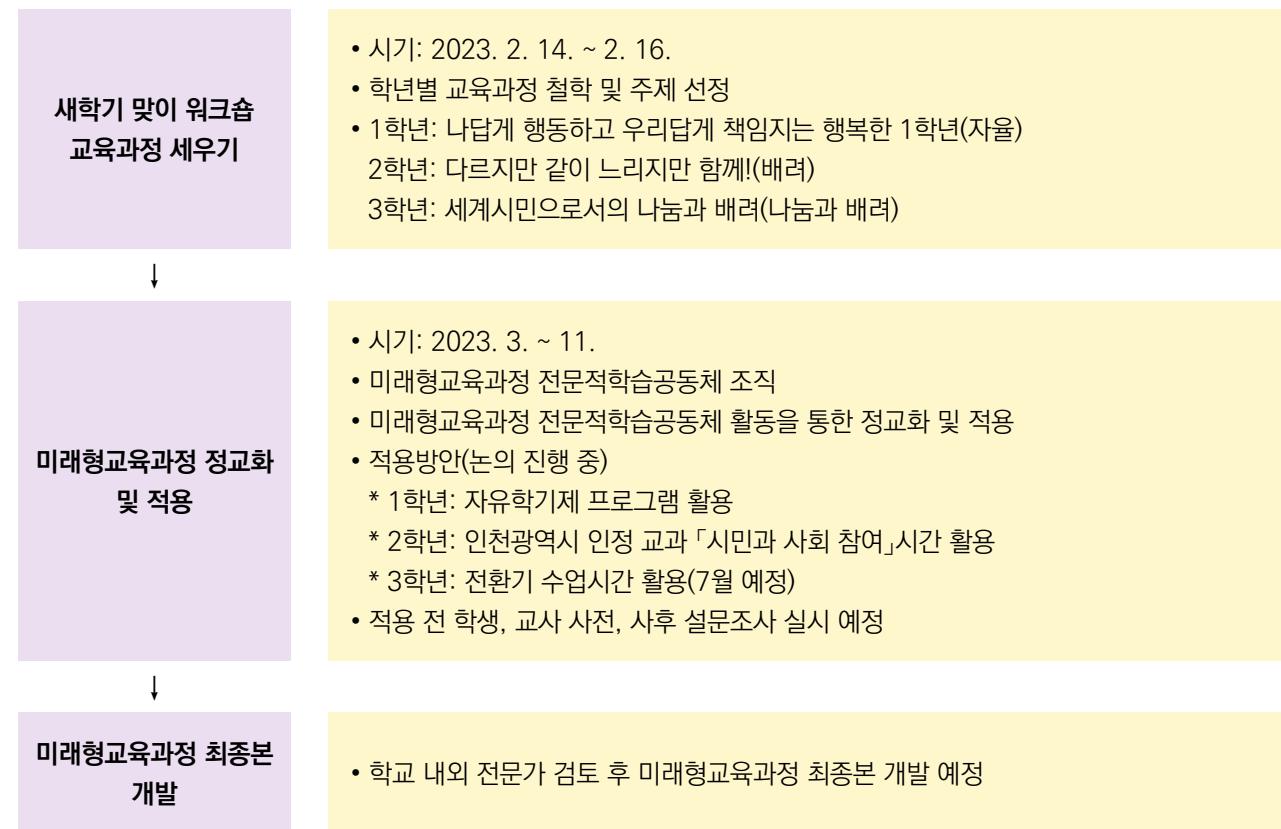
우리 학교는 2021년 3월 1일 자로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감 지정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우리 학교만의 특색이 담긴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1년에는 ‘미래형 교육과정 상상하기’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공동체 대토론회를 열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전환 시민교육 강화”를 학교 교육목표로 정하였고, 작년에는 학교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교과목(동암중학교, 미래를 열다(Ver.1))을 개발하여 올해 7월부터 전 학년에 적용할 예정이다. 동암중학교 구성원이 함께 정의한 미래형 교육과정이란 학교 구성원의 요구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학교교과목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구성원들은 합의하였다. 이에 우리 학교는 학교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 주체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려 노력하였고, 학교교과목 개발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조직하여 치열하게 토론하고 연구하며 학습 공동체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연구 공동체로 발돋움하였다.

II. 학교교과목 개발과정

1. 학교교과목 개발 절차







2. 학교교과목 개발 절차별 추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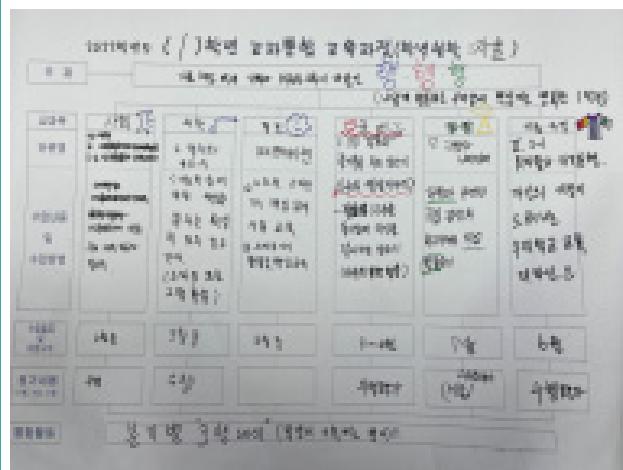
가. 새학기 맞이 워크숍 – ‘함께 교육과정을 세우다.’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 상상하기’라는 이름의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 전환 시민교육 강화”를 학교 교육목표로 정하였다. 2월 새학기 맞이 워크숍에서 학교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학년 교육과정을 세우기 위해 각 학년 선생님의 열띤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1학년은 나답게 행동하고 우리답게 책임지는 행복한 1학년(자율), 2학년은 다르지만 같이 느리지만 함께!(배려), 3학년은 세계시민으로서의 나눔과 배려(배려와 나눔)이라는 학년 교육목표가 세워졌고, 이에 따른 교과 간 융합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 교육과정을 만들고 보니 자연스럽게 1학년은 인식, 2학년은 이해, 3학년은 실천이라는 위계가 만들어져 각 학년 교육과정이 학습자 발달 단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또한 교육공동체가 학교 교육과정 교육목표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상호이해, 상호존중, 건강한 삶, 자존감 향상, 시민성, 지속가능성, 의사소통, 자기관리로 합의하고, 이를 연간 교과운영계획에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모든 교과의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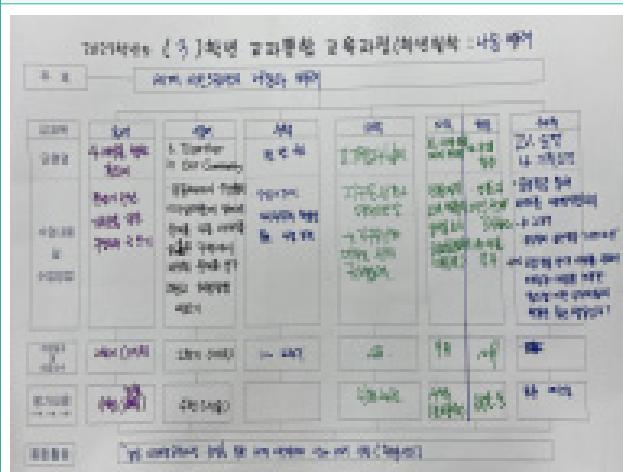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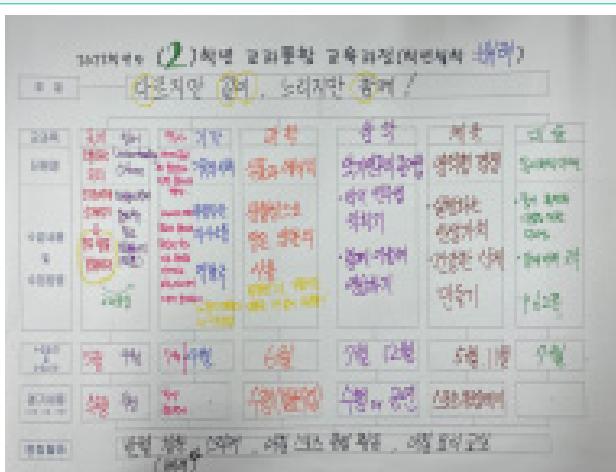
학습목표	역사과 학습역량	역사 자료 이해,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역사 정보 활용 및 조사능력,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학제적 융합 능력
	학교 교육과정 학습목표	상호 이해, 상호 존중, 건강한 삶, 자尊감 형성, 지민성, 과속기능성, 의사소통, 자기관리 등
별고과 학습구역	(① 인천·건강 교육(개년 전문보건 및 체육교과식 영수 및 병행 교육 등) ② 인성 교육(영성·존중·융통제·체육·향유 등) ③ 진로 교육 ④ 민주시민 교육 ⑤ 한글 교육 (이동학제예방·장애인교육·임성·평등·노동·인권·온정·학교폭력예방·등) ⑥ 물이事关·시민교육(세계 시민 교육, 다양성 존중·다문화 이해 등) ⑦ 평화 교육(동질·교육·조성) ⑧ 특도 교육 ⑨ 경제·금융 교육 ⑩ 문명·자족기능(필연 교육)(거울산·고령화·사회 대비 교육, 물 보호·에너지·환경교육, 농업·농촌 이해교육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합의한 학교 교육과정 핵심역량〉



〈새학기 맞이 워크숍〉

〈1학년 교과통합 교육과정〉



〈2학년 교과통합 교육과정〉

〈3학년 교과통합 교육과정〉

나. 3주체 협의회와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듣다.'

학기 초에 세운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3주체 협의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학교 평가 및 수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공동체 대토론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졸업생, 졸업생 학부모, 마을 활동가, 지역사회 기관 담당자, 인근 초등학교 교사, 서울대학교 연구팀, 교육청 관계자 등 지역사회 인사를 초청하였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학교의 특성을 담은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및 적용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 결과를 패들랫을 통해 공유하여 논의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주체 협의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2022 특별기획] 동암중학교 졸업생에게 듣는다

본 기획은 최근에 제작한 동암중학교 졸업생들의 글에서 '담백합니다'로 정한 제작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작 관리자는 김현우 선생님과 함께 제작한 글들을 기반으로 학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글쓰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제작하였습니다. 제작 관리자는 김현우 선생님과 함께 제작한 글들을 기반으로 학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글쓰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제작하였습니다.

제작 관리자는 김현우 선생님과 함께 제작한 글들을 기반으로 학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글쓰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제작하였습니다. 제작 관리자는 김현우 선생님과 함께 제작한 글들을 기반으로 학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글쓰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제작하였습니다.

다. 학교교과목을 개발하다

2021년 3월 1일 자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감 지정 연구시범학교로서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미래형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뜻을 함께한 선생님들과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하였다.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 학교의 교육목표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전환 시민교육 강화'를 이룰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차례의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쳤다. 3주체 협의회와 교육공동체 대토론회에서 나온 교육공동체 구성

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우리 학교는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17차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 유성상 교수팀에 자문을 구하고 마을 활동가를 참여시키며 지역사회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학생 맞춤형 학교교과목을 개발하여 왔다.



〈학교교과목 개발을 위한 교사 역량강화 연수〉



〈서울대학교 미래교육센터와 협업〉

〈학교교과목 개발을 위한 전문적연구공동체〉



〈학교교과목 적용 방안 연구〉

〈학교교과목 적용을 위한 교사용 해설서 개발〉

개발과정이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기후생태환경을 주제로 학교 교과목을 개발하기로 했지만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발팀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 끝에 학교 교과목 주제를 세계시민교육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교내 약자 협오를 극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등장하였고, 기후생태교육에서도 전지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 개인 실천뿐만 아니라 사회, 인권적 관점으로 확대시켜 연대하는 해결 방법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학교교과목이 개발되어야 한다는데 모두가 뜻을 함께했다. 다문화, 인권, 사회정의,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에 맞닥뜨릴 문제의 상당수가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임을 이해하게 하고 실천의지를 갖추는 것을 학교교과목 교육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교과 중심의 분절적 접근을 극복하고 교과 경계를 가로질러 인간과 자연(비인간), 사회체계와 생태체계를 함께 다루는 통합적 접근의 교육을 시도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17차시로 구성된 학교교과목, ‘동암중학교 미래를 열다(Ver.1)’가 개발되었다.

주제	학습주제	학습내용	이해	행동기준
1	세계 시민 이해 (세계 지도 그리기)	세계 6개 나라 국가(國家)를 듣고, 구글에서 검색하여 세계지도를 그려보기	세계지도 그림자를 통해 세계 나무에 대한 관심을 두고, 나라의 이름이 있는 배경지도에서 나라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2-3	문화 다양성 존중 ① - 다른 나라의 문화 (음식, 언어, 민족, 자연환경, 유형 인물, 전통 역사 등)하고 평화로운 대처하기	세계 여러 나라 중 한 나라를 정하여 그 나라의 문화 탐구 - 다른 나라의 문화 (음식, 언어, 민족, 자연환경, 유형 인물, 전통 역사 등)하고 평화로운 대처하기	세계 여러나라 중에 풍미와 관심이 있는 나라를 정하여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수용력과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4-5	문화 다양성 존중 ② - 차별의 면면 (혐오표현)	책을 읽고 토론하기 - 차별의 면면 (혐오표현) - 차별의 면면 (혐오표현)	책을 읽고 토론하기 - 차별의 면면 (혐오표현) - 차별의 면면 (혐오표현)	차별의 양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우리 노력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6-7	문화 다양성 존중 ③ - 차별의 나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체험과 고충 - 차별의 나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 차별의 나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체험과 고충 - 차별의 나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 차별의 나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경험한 노동 권리와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노동 존중 및 노동 인권 감수성을 기울 수 있다.
8-9	문화 다양성 존중 ④ - 평화	평화 감수성 기르기 - 평화 -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차례에 대해 토론하기 - 평화를 위한 공동의 학습 단위기	평화 감수성 기르기 - 평화 -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차례에 대해 토론하기 - 평화를 위한 공동의 학습 단위기	상황과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다양한 간접과 국적 등을 자기 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설방법을 탐구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와 윤리 역량을 기른다.
10-11	지속가능성 ① - 자원의 순환	가리스토리의 필요성 알아보기 나에게 필요한 일상화물의 제품 찾아보기 플라스틱 운동계통 배우기 기후와 나눔의 가치 알아보기 플라스틱을 분리하고 낸 물 풀의 기부 계획 세우기	가리스토리의 필요성 알아보기 나에게 필요한 일상화물의 제품 찾아보기 플라스틱 운동계통 배우기 기후와 나눔의 가치 알아보기 플라스틱을 분리하고 낸 물 풀의 기부 계획 세우기	유익적인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이해하고 친환경 유통망을 소비하는 가치관으로 대한 관심과 나눔기부의 생활습관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
12-13	지속가능성 ② - 기후위기 해결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인식 및 음식물쓰레기 줄여야 하는 이유로 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단계인 계획 배우기 및 자료 제작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단계인 실행하기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인식 및 음식물쓰레기 줄여야 하는 이유로 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단계인 계획 배우기 및 자료 제작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단계인 실행하기	현대 세계가 당면한 현장 문제 중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발생 원인과 심각성을 알아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방안에 대해 토론하여 생활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기른다.
14-15	지속가능성 ③ - 지역사회참여	지속 가능한 도시의 필요성과 우리 지역의 특징 알아보기 학교 밖으로 나가서, 우리 주변에 빛치되고 있어서나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에 주목한, 복 지면에 취약한 지역 찾아보기 온제작과 배관방안 토론 시간동안에 정착재단의 실천가능 프로 편집 후 정책제안 및 사고회	지속 가능한 도시의 필요성과 우리 지역의 특징 알아보기 학교 밖으로 나가서, 우리 주변에 빛치되고 있어서나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에 주목한, 복 지면에 취약한 지역 찾아보기 온제작과 배관방안 토론 시간동안에 정착재단의 실천가능 프로 편집 후 정책제안 및 사고회	지역과 대안 등을 통해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국가 단위의 일정에 시간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할을 염두한다.

('동암중학교: 미래를 열다(Ver.1)' 학교교과목 개요)

III. 학교교과목 개발의 성과

미래형교육과정 학교교과목 ‘동암중학교, 미래를 열다(Ver.1.)’ 개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구성원의 요구와 지역 특색에 맞는 학교교과목 개발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학교교과목을 배움으로써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교육과정이 아닌 삶의 공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둘째,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교육과정 자치, 학교 자치 문화가 형성되었다. 학교교과목 ‘동암중학교: 미래를 열다(Ver.1)’는 3주체 협의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 수렴 및 수용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렇듯 함께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의사결정과정 속에서 학교 구성원은 공동체의 주인으로 성장하여 소속감과 자발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교육과정 자치, 학교자치 문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혔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학교를 너머 마을로 배움의 공간이 확장되었다. 학교교과목 개발 과정에 마을활동가가 참여하여 마을의 물적, 인적, 기관자원을 보다 쉽게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을활동가와 교사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학교 혁신문화를 조성하여 학교에서 마을로 나아가는 교육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학교, 지역 공동체, 지역사회 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넷째, 범교과 17차시 학교교과목 개발을 통해 교과를 가로질러 교과 간 연계를 통한 삶을 위한 깊이 있는 학습, 즉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동암중학교: 미래를 열다(Ver.1)’ 학교교과목에서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 교과 간 융합 수업, 지역사회 연계 특색 교육과정 등을 경험하며 상호이해, 존중, 노동·인권, 평화, 지속가능성 등을 알아가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게 된다.

다섯째, 학교교과목 개발을 위한 교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을 통해 교사 교육과정 개발 역량이 강화되었다. 개별 학생의 특성과 학교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가 직접 학교교과목을 개발하는 과정은 교사 교육과정 실현의 모델이 되었고, 함께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학습 공동체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연구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교사 간 연대를 통해 더 큰 교육적 효과를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여섯째, 학교와 대학의 협력 연구 체계가 마련되었다. 교육 주체의 역할과 전문성이 결합되면 더 큰 힘이 발휘될 수 있다. 학교교과목 개발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미래교육센터 유성상 교수팀과의 협력은 현장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역할과 대학 연구진의 학문적 깊이가 결합되면 더 큰 교육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와 대학의 협력이 서로에게 의미있는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IV. 학교교과목 개발을 위한 제안

위에서 말한 학교교과목 개발을 통해 얻은 성찰을 바탕으로 단위학교에서 학교교과목 개발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교과목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한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학교 자율시간 도입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요구와 지역 특색을 담은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 학교 자율시간 운영은 모든 학교의 과제로 이어 진다. 따라서 학교 자율시간 도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학교교과목 개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다면 학교교과목 개발은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단위학교에서 학교교과목 개발을 하며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교과목 개발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 처음하는 시도에 모든 학교가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교교과목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타시도나 해외사례, 연구학교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유하고, 학교교과목 운영 시 가장 어려움이 있는 적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사례 나눔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교과목이 단위학교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이 확 대되어야 한다. 기존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막상 개발된 학교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학교에서도 1학년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2학년은 선택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3학년은 전환기에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적용이 잘 될 수 있을지 여전히 고민이다. 그런 의미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러한 확대된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제 모든 학교의 고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과목 적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한다.



[학교교과목 교육과정 개발 예시 자료]

1. 교육과정

교육과정명	동암중학교 학교교과목 – 미래를 열다(Ver.1)		
강사명	동암중학교 교사 OOO		
교육기간 (총 17차시)	2023.3.1.~2024.2.28.	교육 장소	동암중학교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세계시민의 개념을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사, 학생, 학부모의 참여로 이루어진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이 특징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 학습자 주도성,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 연계 교육 강화		

주차	수업 일자	강의주제	강의내용	성취기준
1		세계 시민 이해 (세계 지도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6대륙 6개 나라 국가(國歌)를 듣고, 구글에서 검색하여 세계지도 그리기	세계지도 그리기를 통해 세계 나라에 대한 관심을 두고, 나라의 이름이 없는 세계지도에서 나라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2~3		문화 다양성 존중 ① – 다른 나라의 문화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세계 여러 나라 중 한 나라를 정하여 그 나라의 문화 탐구(음식, 언어, 인구, 자연환경, 유명 인물, 전통, 역사 등)하고 발표하기	세계 여러 나라 중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나라를 정하여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수용력과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4~5		문화 다양성 존중 ② – 차별의 언어 (혐오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책을 읽고 토론하기개념 정리를 위한 현실 탐구현실 탐구를 바탕으로 실천 방안 세우기	차별의 언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6~7		문화 다양성 존중 ③ – 차별의 나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아르바이트 피해와 고충아르바이트 10계명시나리오 선정 및 배역 설정	청소년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정당한 노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노동 존중 및 노동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

주차	수업 일자	강의주제	강의내용	성취기준
8~9		문화 다양성 존중 ④ -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감수성 기르기 • 글을 읽고 평화를 위협하는 사례에 대해 토론하기 • 평화를 위한 공동의 약속 만들기 	생활과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다양한 갈등과 폭력을 자기 삶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탐구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와 실천 역량을 기른다.
10~12		지속가능성 ① 자원의 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소비의 필요성 알아보기 • 나에게 필요한 업사이클링 제품 찾아보기 • 플리마켓 운영계획 세우기 • 기부와 나눔의 가치 알아보기 •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남은 물품의 기부 계획 세우기 	유기적인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이해하고, 친환경 용품을 소비하는 가치소비에 대한 안내와 나눔, 기부의 생활습관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다.
13~15		지속가능성 ② 기후위기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인식 및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 실천 방안 토의하기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계획 세우기 및 자료 제작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실천하기 	현대 세계가 당면한 환경 문제 중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발생 원인과 심각성을 알아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생태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른다.
16~17		지속가능성 ③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가능한 도시의 필요성과 우리 지역의 특징 알아보기 • 학교 밖으로 나가서, 우리 주위에 방치되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재해에 취약한, 범죄에 취약한 지역 찾아보기 •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 • 시민참여 정책제안의 실현가능 여부 판단 후 정책제안 및 사고 확장 	시민참여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청소년 사회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국가 단위의 정책에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2. 수업 평가 방식 및 전략

가.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방향

주차	성취기준	평가 방향 및 중점 사항
1	세계지도 그리기를 통해 세계 나라에 대한 관심을 두고, 나라의 이름이 없는 세계지도에서 나라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라의 이름이 없는 세계지도에서 나라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가를 관찰, 확인, 점검
2~3	세계 여러 나라 중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나라를 정하여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수용력과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하고 깊이 있으며 성실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4~5	차별의 언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할 수 있다.
6~7	청소년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정당한 노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노동 존중 및 노동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활동을 통해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다른 모둠이 역할극을 할 때 경청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8~9	생활과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다양한 갈등과 폭력 등을 자기 삶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탐구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와 실천 역량을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란 무엇인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 평화를 위한 공동의 약속을 같이 만들 수 있다.
10~12	유기적인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이해하고, 친환경 용품을 소비하는 가치소비에 대한 안내와 나눔, 기부의 생활습관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과 소비의 관계 및 가치소비의 개념을 말 할 수 있다. 플리마켓 활동을 통해 나눔과 기부를 실천할 수 있다.
13~14	현대 세계가 당면한 환경 문제 중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발생 원인과 심각성을 알아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생태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 세계의 문제점을 알고, 자신이 실천 가능한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다른 사람과 함께 연대하여 실천할 수 있다.
15~17	시민참여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청소년 사회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국가 단위의 정책에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사회 참여 방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알고, 이를 위한 시민참여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2023

결대로자랑. 컨퍼런스

여름



만족도 조사

아래 QR코드를 접속하여 응답해주세요.
[10초 소요]



<http://2zt.kr/9243>

